

금수강산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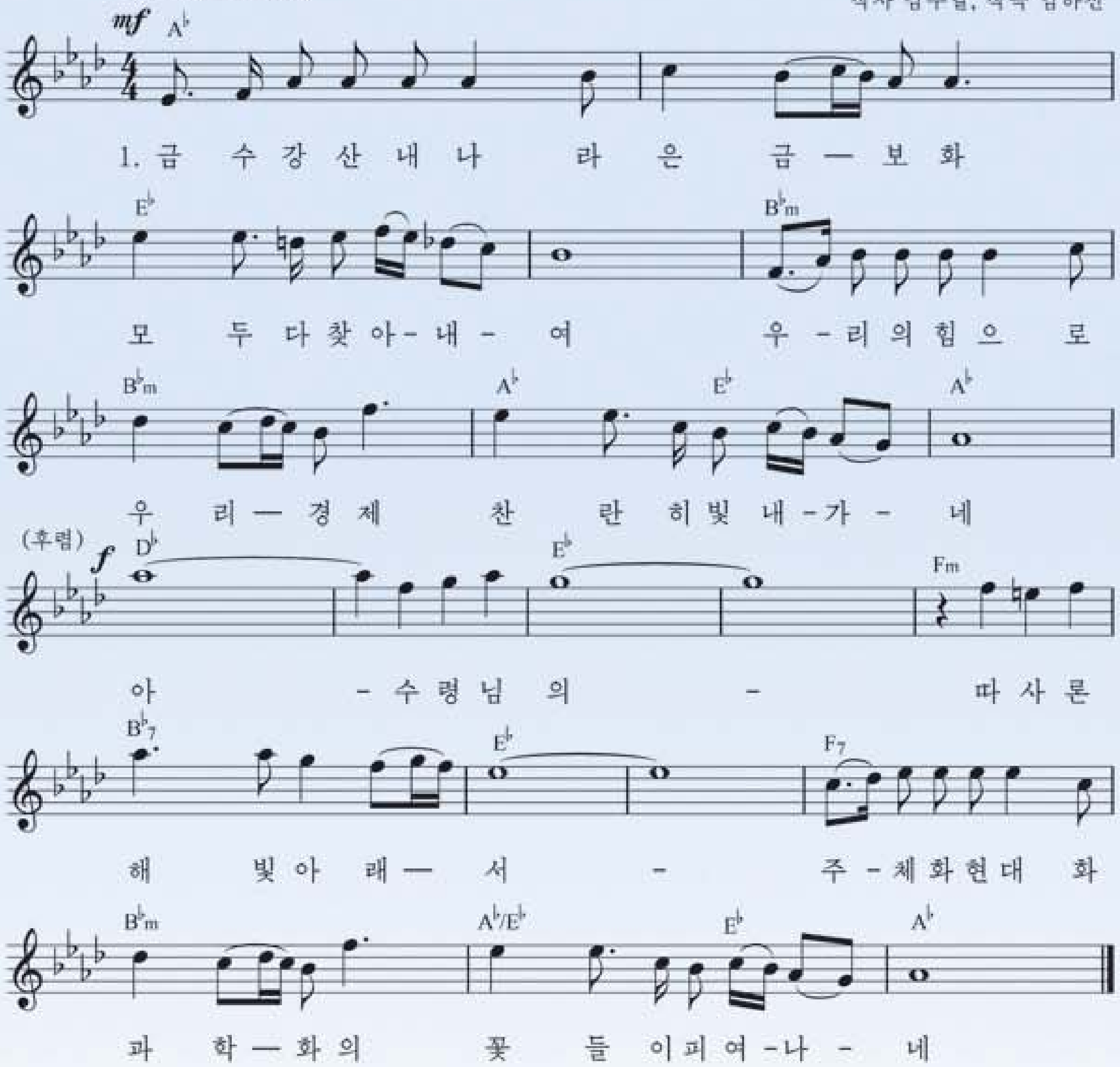
주체106(2017)
루계 제333호 월간

 ISSN 1727—9062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꽃이 피네

약간 빠르고 밝게

작사 김두일, 작곡 엄하진



2. 온 나라에 기계화 자동화의 불빛은 흘러가고
힘든 일 사라진 일터마다 기쁨이 넘쳐나네
(후렴)

3. 새 기술 새 과학 모두 배워 창조의 불길 높이니
주체로 빛나는 우리 조국 끝없이 번영하네
(후렴)

차 례







- 전민이 과학기술을 배운다 -

온 사회에 과학기술중시열풍을 일으키시여

우리 조국이 전례없는 과학기술중시열풍, 배움의 열기로 들끓고있다.

평양의 과학기술전당은 물론 각 도, 시, 군의 미래원과 전국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어촌들에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들에도 선진과학기술을 배우는 사람들로 차있다.

그들중에는 과학자, 기술자들뿐아니라 일군들과 로동자, 농민, 대학생, 초, 고급중학교학생들도 있다. 비록 직업과 나이,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누구나 열심히 배워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인재가 되려는 지향은 하나와 같다.

온 사회에 고조되고있는 과학기술중시열풍은 과학기술을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주체103(2014)년 년초부터 국가과학원을 찾아주시고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자휴양소,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한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한 건축물들을 일떠세우시여 과학기술과 인재중시의 분위기가 온 사회에 더욱 차넘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그 배움의 열의가 급속히 앙양됨에 따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서 거점으로 될 과학기술전당건설을 몸소 발기하시였다.

모든 근로자들을 과학기술인재로 준비시킴으로써 몇몇 과학자,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전체 인민의 지혜와 슬기와 힘으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이고 결심인것이다.

주체101(2012)년 한해동안에만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주 후대들이 세계적인 첨단과학을 디디고 올라설수 있게 하자면 과학기술보급기지들을 반드시 꾸려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보급기지는 금은보화에도 비기지 못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실 때에도, 과학기술로 발전하고 과학기술로 살아가는 현시대에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세기를 주름잡아 도약해나가야 한다고 여러차례나 강조하실 때에도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깃든 숭고한 과학기술중시, 인재중시의 세계를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쑥섬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야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수 있다고, 그러자면 과학기술보급거점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이름을 《과학기술전당》이라고 지어주실 때에야 일군들은 그이께서 지니신 과학기술중시, 인재중시의 세계를 페부로 깊이 느끼게 되였다.

주체105(2016)년 1월 과학기술전당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전당의 준공은 우리 당(조선로동당)이 과학전선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과학기술전당운영을 잘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과학기술강국화, 인재강국화실현에 크게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오늘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온 나라 곳곳에 그물처럼 뻗어있는 각급 과학기술보급기지들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이 맥맥히 높뛰고있다.

언제인가 한 기계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종업원들과 기술자들이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세계기계제작공업발전추세를 알수 있게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릴데 대하여 간곡히 이르시였고 어느 한 공장에

가시여서는 당에서 직접 맡아 과학기술보급실을 건설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주체103(2014)년 12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 우리 나라가 선진공업국으로 도약할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이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게 과학기술보급실을 더 잘 꾸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아직은 당면한 천생산계획에 대하여서만 생각하고있던 이곳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서 과학기술보급실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그이께서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리는 문제를 왜 그처럼 강조하시고 과학기술보급기지를 실용성있게 일떠세우고 운영하도록 하시였는가를 다시금 새겨안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나날 공장, 기업소 등에서 과학기술보급기지를 꾸려놓은데만 그칠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속있게 운영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은이 나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생산자대중의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할수 있게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종업원들의 인식정도를 료해하고 학습계획도 구체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모든 당조직들이 이 사업에 생산 못지 않게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자자구구 새기는 일군들은 머리가 숙어졌다. 지금까지 해당 단위들의 과학기술보급실운영실태를 보면 많은 경우 보급실을 품들여 꾸려놓은 다음 그 운영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단위들이 있는 반면에 일부 그렇지 못한 단위들도 있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과학기술보급실운영에서 나타나는 부족점들을 포착하시고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생활력을 자랑찬 현실로 펼쳐놓았다.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원산구두공장, 류원신발공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체육기자재공장, 평양자라공장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리는 한편 과학기술보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는것이 하나의 풍경으로 펼쳐지게 되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보급망체계가 곳곳에 그물처럼 뻗어나감으로써 과학기술보급 및 교류활동이 전례없이 활발히 진행되여 과학기술중시의 사회적분위기는 날과 달을 이어 고조되고있다.

누구나 첨단과학기술의 주인으로 되기 위한 학습열풍속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평양곡산공장의 로동계급은 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쳐 백합과자콘베아를 비롯한 각종 콘베아들과 크고 육중한 가마들과 탕크들, 착유기 등 수십종에 100여대에 이르는 기계설비들을 국가설계기관이나 나라의 이름난 기계공장의 도움도 없이 공장자체의 힘으로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하여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안주뽐프공장, 평양326전선공장, 원산구두공장 등 수많은 공장, 기업소의 로동계급들도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로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제품의 질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하기에 과학기술중시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는 조국의 현실을 격동속에 돌이켜보며 인민은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현대과학기술을 체득해가는 인민이 있기에 조국은 그 어떤 첨단과학기술의 목표도 반드시 점령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올수 있다는것을.

본사기자 변진혁

전민과학기술인재화와 조국의 현실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만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조국에서는 오늘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높이 현대과학기술을 배우기 위한 열풍이 그 어느때보다도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는 과학기술강국이며 그러자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사상은 지식으로 살아가고 지식으로 발전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체 인민을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로 키워 자체의 과학기술의 힘으로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전에서 승리하고 조국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앞당겨올수 있게 하는 사상이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사상에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강령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100% 계승하여 조국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결심과 의지를 받들고 오늘 조국에서는 전체 인민을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다.

의무교육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전문교육을 받을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주고있으며 보통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는 정연한 교육체계가 확립되고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가 힘있게 다그쳐짐으로써 학생들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실력있는 인재로 키워내는 사업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있다.

최근년간 세계적으로 진행된 수학올림픽경연과 외국어경연 그리고 피아노콩클, 바얀콩클 등에서 조국의 학생들이 련이어 세계적패권을 쥐고있는 사실은 조국의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조국에서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도 날로 발전하고있으며 특히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원격교육과 과학기술보급사업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주요대학들이 학술중심, 정보중심, 자료봉사중심, 원격교육중심으로 꾸려지고 중앙과 도, 시, 군들사이에 자료들을 주고받을수 있게 콤퓨터망이 이루어짐으로써 수많은 공장, 기업소, 농목장들과 개별적사람들이 필요한 과학기술정보자료들을 충분히 봉사받을수 있게 되였으며 대학에 가지 않고도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보다 원만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인민대학습당과 각지에 있는 도서관을 통한 정보교육체계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실현되였고 특히 지난해 정초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며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보급의 중심거점인 과학기술전당이 훌륭히 준공되여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이 중앙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물이 흐르듯이 보급되고있다. 그리고 각지에 미래원과 기관, 기업소, 농장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에 과학기술보급실들이 그쯘히 꾸려지고 정상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있으며 그를 통해 누구나 다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적극 활용해나가기 위한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의 대오가 날을 따라 늘어가고있다.

뿐만아니라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세워져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작전하며 진행해나가고있다.

오늘 온 나라에 일고있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열풍은 가까운 앞날에 종합적과학기술력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설 우리 조국의 모습을 신심있게 그려보게 한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문진성

일 화

중시하신 문제

나라의 체육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한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찾으신 때는 주체105(2016)년 6월초였다.

공장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체육을 발전시키자면 튼튼한 물질적조건이 안받침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미 있던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새로 건설할것을 발기하시여 세워지게 된 공장이였다.

이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정형, 제품의 가지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만족을 표시하신 그이께서는 공장에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로 향하시였다.

보급실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보급실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러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공장일군들은 자책감으로 하여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사실 그들은 과학기술보급실을 품을 들여 꾸려놓기는 하였지만 공장종업원들이 과학기술지식을 충분히 습득할수 있게 그 운영을 잘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대번에 이 사실을 헤아려보신 그이께서는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일군들에게 과학기술보급실은 근로자들이 자기 단위의 현행생산에 이바지할수 있는 선진과학기술과 전문기술을 습득하는데 이바지하는 장소로 되여야 한다고,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전문과학분야의 지식을 전수시키는것이라고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선진과학기술과 자기 단위와 같은 부문의 전문기술에 대한 강의를 하는것도 목적지향성있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새겨안는 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해 하루빨리 모든 근로자들을 자기 단위의 생산과 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능력있는 지식형의 근로자들로 키워내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의도가 안겨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그이께서 왜 그토록 과학기술보급실을 중시하시며 그 어디에 가시든 꼭꼭 들려 가르치심을 주시는가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였다.

본사기자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로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평양수지건재공장에서 각종규격의 수지관과 지붕록화용담수판, 수지벽지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 비결에 대해 공장일군인 안재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대중적기술혁신이 낳은 결과이라고 본다. 우리는 설비갱신과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을 몇몇 기술자들만이 아닌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의 열의를 발동하여 대중적기술혁신으로 해결하였다.》

지난해 공장에서 수지벽지생산공정을 새롭게 개조할 목표를 내세웠을 때였다.

당시 공장실정으로 보면 기술적으로나 자재보장문제를 놓고 볼 때 부족한것이 많았다. 그런데로부터 일부 종업원들은 머리를 기웃거리였고 또 어떤 종업원들은 지금 있는 설비를 가지고 바쁜 생산계획이나 수행하고 보자고 하였다.

그때 대다수 종업원들속에서 울려나온 목소리는 한결같이 이러했다.

우린 언제까지나 제자리걸음을 할수 없다, 지금 시대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인민들의 문명수준도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다, 여기에 우리가 따라서지 못한다면 영영 주저앉고말것이다.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이 떨쳐나섰다. 하여 공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을 일으키는데서 과학기술보급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종업원들이 보급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우선 작업반별로 보급실운영시간을 정해주고 어김없이 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급실에서 진행하는 고급기능공들의 경험토론회도 품을 들여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고 새 설비제작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전당의 기술자료들을 충분히 연구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모든 종업원들의 현상응모도 여러차례나 실속있게 조직하였다.

그 과정에 종업원들속에서 배우려는 열망이 더욱 높아지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현실에 도입되였으며 원격교육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수도 늘어났다.

기술혁신을 위한 콤퓨터 모의시험을 진행한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게 되였으며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였다.

로동자들인 강철룡과 김정남, 김윤민은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협조속에 자동온도조종체계, 겔화로의 온도균등성보장과 관련한 열복사체재배치 및 보충, 벽지생산속도조종체계의 자동화, 부각공정의 현대화 등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색문양수지벽지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공무작업반 반장 박인규와 로동자 한광혁은 분말배합기를 새롭게 제작하고 동력작업반 반장 김승일은 비닐관생산의 속도조종체계 동력련결부분을 실정에 맞게 전환시켜 비닐관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로동자 김성준도 담수판생산설비에 진공기를 도입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였다.

공무작업반 반장 박인규는 말하였다.

《지금도 온 공장이 기술혁신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종업원들은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해 많은것을 배우는 속에 설비와 제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게 벌리고있다. 그리고 설비현대화의 목표도 높이 세우게 되였다.》

지금 공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으로 앙양된 종업원들의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유리섬유벽지생산공정확립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내밀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전국수의축산부문 과학기술토론회



전국산림기계전시회

커가는 사회적 관심과 기대속에

조국에서 과학기술중시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그런 속에 전국과학기술축전,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를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들에서 그리고 부문별로, 단위별로 각종 과학기술전람회, 전시회 등이 끊임없이 진행되고있다.

여기에는 과학자,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과학기술발전의 주인, 담당자라는 자각을 지니고 적극 참가하고있다. 사실 나라의 과학기술은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참가할 때 비할바없이 빨리 발전하게 되는것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조국에서는 대중적이며 다양한 과학기술축전, 전람회 등을 광범위하게 자주 조직진행할뿐아니라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놓은 입선자들을 높이 평가해주고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발명과 새 기술을 널리 보급일반화하여 누구나 따라앞서고싶어하고 또 따라배우고싶어하는 욕망을 품도록 하고있으며 서로의 경험교환을 통해 수준도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실지 이 사업을 통해 전문가들 못지 않게 비전문가들의 열의가 높아지고 성과 또한 크게 나타나고있다.

그것은 지난 시기 전력, 석탄, 금속,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내놓은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 수십명이 박사학위를 받은것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여기서는 일군들부터가 앞장에서 모범이 되고있다.

해마다 조국에서는 전국과학기술축전이 성대하게 진행되고있는데 나라의 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적로선에 따라 주체75(1986)년부터 시작된 축전에는 첫 시작부터 일군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염주군량정사업소 일군인 최태순이 오랜 기간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완성한 간소화된 강냉이가공공정기술을 내놓아 전문가들의 관심속에 축전에서 1등을 하고 함흥편직공장의 일군 역시 특색있는 뜨개천열처리기술을 내놓아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으며 은률광산 일군인 강길영이 박토처리의 현대화를 위한 콘베아조종 및 감시체계를 새롭게 혁신하여 우승한것 등이 그 실례로 될수 있을것이다.

일군들의 모범은 그대로 근로자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추동하였으며 근로자들 역시 축전마다에서 훌륭한 과학기술적성과들을 내놓게 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로동자 남궁원군은 기업소 기술자들의 방조속에 현장에서 요구되는 강판자동적재기를 연구제작하고 강원도 안변군농기계작업소 로동자 리극성은 열관압축식기관 기통토시재생지구를 창안하였으며 평강잠업농장의 박무일은 새 품종의 뽕나무를 연구하여 모두가 축전에서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였다.

어느 한 축전에서는 대동군 학수협동농장 농장원들인 강광일, 로순영부부가 내놓은 기술혁신안이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평생 포전길을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꽃피우는 길에 자기들의 지혜와 재능을 다 바칠 결심을 안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자원진출한 그들부부는 피타는 탐구와 노력을 기울여 적은 량의 수분과 공기를 보충하여 뜨락또르에서 연유를 20%이상 절약하면서도 쉽게 도입할수 있는 기술을 발표하여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자기 지방의 흔한 원료와 자재를 리용하여 어디에서나 손쉽게 만들수 있고 리용가치 또한 큰 비소성장식판생산기술을 내놓아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국산화한 강원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산하단위 로동자 리선희 역시 그러하였다.

이러한 과학기술중시열풍은 비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만이 아니라 조국에서 진행되고있는 모든 과학기술전람회, 전시회, 연구토론회 등에서도 세차게 일고있다.

현실은 과학기술에 의거한다면 그 어떤 일에서나 성과를 거둘수 있으며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전사회적인 과학기술중시열풍은 앞으로 보다 훌륭한 성과를 안아올것이며 그것은 과학기술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경수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전시 및 발표회



전국과학기술축전장에서



자연에네르기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성과전시회도 진행되고있다.



- 전민이 과학기술을 배운다 -

배움의 열의는 창조의 열매로 빛난다

지금 조국의 그 어디에서나 세차게 일고있는 과학기술중시열풍이 정말 이만저만 아닙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가 자리잡고있는것으로 하여 나라의 주요공업도시의 하나로 손꼽히는 우리 안주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해전 우리 시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미래원으로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있습니다.

우리 미래원에는 20여개의 열람실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국가망에 련결된 콤퓨터들과 수만권에 달하는 도서들이 갖추어져있습니다.

미래원에서 원격교육을 받고있는 사람들은 백수십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시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의 책임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도 수많이 찾아오고있는데 그 수는 나날이 늘어나고있으며 그들의 배움의 열의는 창조의 열의로 이어져 훌륭한 열매를 맺고있습니다.

우리 미래원의 독자들은 한결같이 오늘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자기 힘으로 일떠서는 강성한 우리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하루일을 마친 후 여기서 분과 초를 쪼개가며 학습하고있습니다.

안주복합미생물비료공장 지배인 리영학(50살)은 농작물의 병견딜성을 높이는 나노규소비료를 연구하였으며 안주위생자기공장 기술준비원 김춘모(39살)는 보온효과가 높은 단열벽돌에 의한 소성로를 일떠세우도록 함으로써 공장에서 년간 2 000㎾의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제품의 질을 담보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주견직공장 책임부원 김성일(44살)은 10여가지의 수입산시약을 국산화하였습니다.

독자들이 거둔 크고작은 과학기술적성과들을 대할 때면 저를 비롯한 미래원의 모든 봉사자들은 오늘 우리 조국에서 펼쳐지고있는 과학기술중시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생활력을 더욱 뚜렷이 나타나게 하려면 자신들의 역할을 더 높여야 한다는데 대해서 생각을 가다듬군 합니다.

실력과 실적, 과학기술과 조국의 미래…

이 말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느라니 지난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를 짓부시고 우리의 자강력을 급격히 증대시키며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과학기술강국은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이 세계첨단수준에 올라선 나라,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에 의하여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나라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의 구절구절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하기에 우리는 당 제7차대회이후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미래원을 찾는 독자들에 대한 자료봉사를 더욱 짜고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독자들이 과학기술전당과 인민대학습당 등에 있는 자료들을 임의의 순간에 신속정확히 선택하여 리용할수 있도록 홈페지 《백상루》를 개발하여 국가망에 올리는 등 여러가지 사업을 진척시켰습니다. 그러자 미래원을 찾는 사람들의 수는 더욱 늘어났으며 그들은 미래원의 문을 닫을 시간이 된것도 모르고 콤퓨터앞에 앉아있군 하였습니다.



우리는 독자들을 앉아서 기다리기만 한것이 아니라 시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필요되는 자료들을 주문받아 봉사하는 주문봉사와 자료봉사도 진행하며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더해주고있습니다.

우리의 근로자들이 정열적인 과학기술학습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을 부단히 습득하여 만리마속도를 창조해나가는 자강력의 소유자들로, 창조형의 인간으로 될 때 조국의 전진속도는 그만큼 빨라지고 나라의 과학기술은 더욱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마련된 미래원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해나가겠습니다.

평안남도 안주시미래원
관장 김춘익



조선속담(체험)

- 굶어보아야 세상을 안다

쓰고 단 생활체험을 해보아야만 세상물정을 알게 된다는 뜻으로 체험이 중요함을 강조하여 이르던 말.

-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비에 젖은 흙이 마르면서 굳어지듯이 어떤 풍파를 겪은 뒤에 일이 더 든든하여지는 경우에 비겨 이르는 말.

-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

백번 말로 듣는것보다도 한번 자기 눈으로 보는것이 더 낫다는것을 이르는 말.

참고: 백번 듣는것이 한번 보는것만 못하다

- 소년고생은 사서 하랬다

어린시절에 어려운 일을 이겨내는 생활체험을 많이 하는것이 장래를 위하여 아주 귀중한것이라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어릴적고생은 사서 하랬다》라고도 한다.

참고:

① 소년고생은 은을 주고도 못 산다

② 어려서 한 고생은 금보다도 귀하다

-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사랑을 안다

① 제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부모가 자식에게 기울이는 사랑을 알게 된다는 뜻으로 자식이 그끝을 다 알수 없을만큼 부모의 사랑이 깊고 두터움을 이르는 말.

②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무엇이나 그속을 다 알수 없음을 비겨 이르는 말.

* * *



과학기술전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조선혁명군

(전호에서 계속)

형권삼촌은 체포된 후 얼마동안 홍원경찰서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그후 함흥감옥에 다시 이송되여 거기서 또 중세기적인 고문을 받았다.

함흥지방법원에서의 법정투쟁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입을 거쳐 우리에게도 전달되였다.

그때 형권삼촌은 법정에서 일제의 죄상을 추상같이 단죄하면서 무장한 강도들과는 무장으로 싸워야 한다고 소리높이 웨치였다고 한다.

삼촌이 이처럼 법정에서 당당하게 처신할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혁명에 대한 신념과 충실성이였다고 생각한다. 삼촌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한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인간을 정의롭고 용감하게 만들며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신념에 대한 배신이였을것이다.

최효일은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았다. 삼촌한테는 15년의 징역형이 떨어졌다고 한다.

삼촌과 그 전우들은 재판장에서 혁명가요를 우렁차게 불렀다. 노래가 끝나면 구호를 냅다 불렀다.

소조성원들은 법정투쟁기간을 연장하려고 서울복심법원에 상소하였다.

함흥재판에서 쓴맛을 본 일제는 서울에서 한명의 방청자도 없는 비밀재판을 하였다. 놈들은 그때 함흥지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시인하였다.

최효일에 대한 교수형은 판결이 내린 후 얼마 안있어 인차 집행되였다. 최효일은 잘 싸워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사형장으로 태연하게 걸어나갔다.

형권삼촌은 10년이상의 장기형수들만을 주로 가두어두는 서울의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였다. 이 감옥에서도 삼촌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놈들이 중형을 진 《정치범》들을 전향시키려고 책동할 때 삼촌이 수많은 수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상전향을 반대하는 열화같은 연설을 하여 군중을 격동시키고 수감자들에 대한 대우개선투쟁의 앞장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한 사연들은 이미 세상에 많이 소개되였다고 생각한다.

놈들은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탄알상자를 만드는 작업에 수인들을 내몰았다. 수인들은 그때 7등밥을 먹으면서 살인적인 로동을 강요당하고있었다.

분격한 형권삼촌은 10월혁명기념일을 계기로 교형리들의 살인적인 강제로동을 반대하는 옥내공장수인들의 파업을 지도하였다. 이 파업에 많은 수인들이 참가하였다.

놈들은 삼촌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캄캄한 독감방에 가두어두는것만으로도 모자라 팔목과 발목에 고랑쇠를 채워 조금만 움직여도 그 고랑쇠가 살을 파고들게 하였다. 식사도 하루에 아이들주먹만 한 콩밥덩어리를 한개씩 들이밀었다.

삼촌이 그처럼 엄혹한 처지에서도 투쟁을 계속하였기때문에 감옥당국자들은 김형권이 마포형무소를 적색화한다고 비명을 질렀다.

어느날 박차석은 감옥안에 있는 공장에 나가 일하다가 우리들이 만주각지에서 무장투쟁을 활발히 벌리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형권삼촌에게 전하였다.

삼촌은 그 소식을 듣고 철창에 끌려온 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박차석의 손을 붙잡고 목멘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며칠 가지 못할것 같소. 살아남은 동무들이 끝까지 싸워주오. 형기가 끝나 이곳에서 살아나가면 만경대에 계시는 나의 어머님을 꼭 찾아보고 내 이야기를 해주오. …앞으로 성주를 만나거든 내 소식을 전해주고 내가 최후의 순간까지 굴하지 않고 싸웠다고 말해주오. 이것이 내 마지막부탁이요.》

삼촌이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아주 누워있을 때의 일이였다.

삼촌이 사경에 처하자 형무소에서는 면회를 와도 좋다는 통지를 만경대에 보냈다.

형록삼촌이 그때 돈으로 40원을 꾸어가지고 친척인 봉주와 함께 서울에 가서 마지막으로 형권삼촌을 만나보았다.

《형무소에 가니 간수가 병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더구나. 다른 〈죄수〉들은 다들 앉아있는데 병신이 되여 다 죽게 된 우리 형권이만은 백골같은 모습으로 누워있지 않겠니. 그때 기가 막히던 생각을 하면. … 나를 보자 말소리도 못내고 입만 우물우물하는데 어찌도 참혹해졌는지 그게 내 동생이라고 믿기 어렵더라. 그런 동생이 오히려 나를 보고 웃으면서 〈형님,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지만 왜놈들은 꼭 망합니다.〉 하구 말할 땐 역시 우리 형권이답구나 하는 생각이 나더구나.》

내가 조국에 개선하여 고향집을 찾았을 때 형록삼촌이 나에게 한 말이였다. 나는 그 회고담을 듣고 형권삼촌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였다. 그리고 어느때인가 편지로 삼촌을 비판한것까지도 후회하였다.

동생의 처참한 형상을 보고 정신까지 잃었던 형록삼촌은 그때 간수들에게 요구했다.

《내 동생 형권이를 집에 데리고가서 치료하게 해주오.》

간수는 그 말을 듣자 《안돼. 네 동생은 살아도 감옥에서 살아야 하고 죽어도 이곳에서 죽어 감옥귀신이 돼야 해. 집에 데려가지는 못해.》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동생대신 감옥에 들어가있겠소. 동생이 집에서 치료를 받고 몸이 추선 다음 여기에 다시 와있으면 되지 않소.》

《이놈아, 징역을 대신 사는 법이 어디 있어?》

《법이야 당신네들이 내면 법인데 왜 못하겠소. 그렇게 좀 해주오.》

《이놈, 어디서 이따위 수작질이야. 동생이 나쁜 놈이더니 형이란것도 몹쓸놈이구나. 너희네 종자는 다 나쁜 놈이다. 어서 당장 나가라!》

간수들은 이렇게 고함치면서 형록삼촌을 감옥에서 쫓아냈다.

형록삼촌은 생각다 못해 간수에게 돈 16원을 맡기며 《아무쪼록 우리 형권이를 잘 돌봐주시오.》 하는 부탁을 남기고 만경대로 돌아왔다. 그 정도의 돈을 먹는다고 교형리들의 마음이 움직일리가 만무하였지만 삼촌은 수중에 있던 돈을 다 털어놓았다.

감옥에서 돌아온 삼촌은 한달동안 잠을 자지 못하였다. 눈만 감으면 동생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룰수 없더라는것이다.

그후 석달만에 형권삼촌은 형무소에서 숨을 거두었다. 1936년초이니 내가 2차 북만원정을 끝내고 부대와 함께 남호두지방으로 가고있을 때였다. 그때 삼촌의 나이가 서른한살이였다.

아버지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동생도 가고 삼촌마저 가니 혁명을 위해 뼈를 깎고 살을 저미던 나의 혈육들은 다 가고 없는셈이였다. 나는 그때 산에서 삼촌이 사망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나만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망국의 한을 품은채 고국의 이름모를 언덕에 무주고혼이 되여 누워있는 삼촌의 원쑤를 갚고 기어이 나라를 찾으리라고 결심하였다.

사망통지서를 받고서도 로자가 없어 시체를 찾아오지 못해 삼촌이 마포형무소 공동묘지에 묻혔다는 가슴아픈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형권삼촌은 눈을 감는 마지막순간에야 수감자들에게 숨기고있던 이야기를 하였다.

《**김일성**은 내 조카이다. 그는 지금 만주에서 큰 혁명부대를 이끌고 왜놈들을 족치고있다. 그 부대가 국내에 쳐들어올 날은 멀지 않았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무장으로 싸우라. 무장을 들고 싸워야 왜놈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해방할수 있다!》

나는 형권삼촌을 생각할 때마다 카륜회의결정을 관철하는 길에서 청춘을 서슴없이 내던진 수많은 전우들을 눈앞에 그려보군 한다.

형권삼촌에게는 영실이라고 부르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해방후 만경대혁명학원에 다니였다. 나는 어떻게 하나 그 애를 잘 키워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일점혈육마저 전쟁시기 폭격에 희생되였다.

우리 혁명의 행군로를 피로써 개척한 조선혁명군 대원들의 업적은 참으로 거룩하고 숭고한것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들의 영웅적투쟁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그들이 흘린 성스러운 피의 대가로 이 세상에 상비적인 혁명무장력으로 태여나게 되였다.

(끝)

애국적지조를 지켜

평양시 사동구역 오류리에는 지난날 조국의 농촌 그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수수한 농가가 있다.

그 농가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께서 탄생(1876. 5. 31.)하신 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

리보익녀사께서는 이 나라의 평범한 녀성이였지만 남달리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시였다.

녀사께서는 언제나 자제분들에게 대가 바르고 굳세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으며 아드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부터는 나라를 찾는 큰일을 하자면 마음을 크게 먹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드님의 혁명투쟁을 적극 도와나서시였다.

녀사께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실 때에도, 적들에게 체포되시여 철창속에서 불굴의 투쟁을 벌리실 때에도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뒤바라지를 고스란히 해오시였다.

자신보다 먼저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시는 열렬한 애국자이시였기에 녀사께서는 사랑하는 아드님들과 손자분들을 혁명의 길로 서슴없이 떠나보내실수 있었고 그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실수 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무송에 오신 리보익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증손아, 이제는 아버지가 메고있던 짐을 네가 메야겠구나. 너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어이 나라를 찾아야 한다. 나나 어머니에게 효도를 못해도 좋으니 조선을 독립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잊지 못하시며 자신께서는 할머님의 그 말씀에서 큰 충동을 받았다고, 만일 그때 할머니가 조선독립이 아니라 앞으로 부자가 되거나 출세할 생각이나 하라고 하였더라면 나는 그다지 큰 감동을 받지 못했을것이라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일제의 《귀순공작》사건때에도 리보익녀사께서는 강의한 신념과 굳은 절개를 지키시였다.

일제는 리보익녀사께 여러차례 《귀순공작》에 응하라고 설교도 하고 강제로 끌어내기도 하면서 어떤 때에는 1년가까이 서간도의 산악지방으로, 그후에는 만주벌판으로 끌고다니였다.

이때에도 녀사께서는 좋다, 너희들이 억지로 날 데리고가겠거든 가자, 그렇다고 너희들을 도와줄줄 아느냐, 그대신 나는 나대로 이 기회에 손자가 싸우고있는 백두산과 만주의 산천이나 실컷 돌아보겠으니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일제의 강요로 다시 만주땅을 밟으시였을 때에도 리보익녀사께서는 항일유격대가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으시면 내 손자가 장하다, 어서 왜적들을 다 잡아치우고 우리 나라 땅에서 왜적들의 씨를 말려라 하고 기세를 올리시였다.

녀사께서 총 한자루 없는 몸으로 적들을 전률시킬수 있은것은 신념과 의지가 강하고 미래에 대한 신심이 확고하시였기때문이였다.

리보익녀사는 직업적인 혁명가가 아니였다. 학교를 다니신적도 없었고 조직적인 교양을 받으신 일도 없었다.

하지만 리보익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안고계시였기에 원쑤들의 그 어떤 박해와 고초, 모진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적들과 그처럼 당당히 맞설수 있었으며 마침내 조국해방의 날을 맞으실수 있었던것이다.

본사기자 진룡진

민족대단결의 고귀한 경험

한식솔을 단합된 가정으로 꾸리는것도 헐치 않은데 민족의 단결을 이룩한다는것은 매우 힘든것이다. 주의주장이 각이한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문제는 그 어느 민족, 그 어느 나라도 실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난 세기 30년대 항일혁명의 진두에 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때에 벌써 조국광복회라는 거족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를 내오시고 그 두리에 전체 조선민족을 결속시키시였다.

사실 민족의 모든 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한 시도는 그 이전시기에도 있었다. 그것은 초기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과의 련합으로 이루어진 신간회였다. 물론 당시 신간회는 취지와 목적에 있어서 애국적이고 반일적이였지만 그 훌륭한 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서 자기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다.

그 원인은 조선민족의 단합을 두려워한 일제의 간교한 책동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신간회를 이끌어나갈만 한 중심적인 지도력량이 없는데 있었다.

당시 신간회의 와해에서 교훈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문제를 중요한 방침으로 제시하시고 민족의 총력을 항일구국위업의 기발아래 결집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시였다. 그 과정에 이 운동을 이끌어나갈만 한 핵심도 키워내고 유익한 경험도 축적하시며 범민족적인 통일전선체로서의 조국광복회를 창립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벌려나가시였다.

조국광복회창립을 두고 사색을 무르익혀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나이많은 한 서생을 만나게 되시였는데 그는 후날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대통령감》으로 불리운 리동백이였다. 그로 말하면 제딴에는 독립운동을 한다며 화요파와 엠엘파에 뛰여들어 파쟁의 추악한 암투를 체험할대로 하였고 그에 환멸을 느끼고 깊은 벽지에서 서당훈장을 하며 은둔생활을 해온 사람이였다. 그러던 그였지만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운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는것을 단념하였다.

그 리유는 첫째로 위대한 수령님의 고명한 경륜이였고 둘째는 당시 그이께서 입고계시던 기운 바지와 일신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격리상태의 열병환자들을 찾아가시여 친어버이심정으로 돌봐주시는 그이의 모습이였다. 그리고 세번째 리유는 그이의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사고방식과 혁명승리에 대한 드팀없는 확신이였다. 하여 그는 조선의 운명을 책임적으로 말아안은 진짜배기 주인, 진짜배기 지도자를 찾은것으로 하여 그이따라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였고 조국광복회 발기인의 한사람이 되여 조국광복회의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작성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이렇듯 이러저러한 허물이 있다고 하여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품에 안아 참다운 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이의 넓으신 도량과 포용력이 있어 주체25(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가 창립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에서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조국광복회는 10개 조항으로 된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과 그 기관지로 《3.1월간》을 가지고있었다.

이런 유일한 강령과 규약, 조직체계를 가지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기초하여 활동하는 조국광복회조직은 그후 짧은 시일에 전국적, 전민족적범위로 확대발전되게 되였으며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업적이 집대성된 조국광복회창립은 오늘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로, 온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고귀한 경험으로 되고있다.

윤승주

웅대한 목표실현의 첫걸음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웅대한 목표를 받아안고 가슴을 들먹이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어느덧 1년이라는 나날이 흘러갔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력사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나날 조국은 만리마속도로 세월을 주름잡으며 힘차게 달려왔다.

그러나 웅대한 목표실현의 첫걸음은 결코 순탄하게 떼여지지 않았다. 우리가 잘살고 강대해지는것을 바라지 않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예상치 않았던 자연의 대재앙은 엄중한 난국을 조성하였다.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은 조국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시시각각 시험하였고 미제와 그 주구들은 감히 공화국의 《위기설》을 떠들며 조국의 전진이 좌절되기를 망상하였다.

하지만 조국의 전진은 좌절된것이 아니라 온 나라 인민은 강원도정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피며 만리마속도, 신화적인 건설속도로 줄기차게 내달리였다.

세상에 다시없는 인민의 지상락원을 자기의 손으로 보란듯이 일떠세워가는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 폭풍노도쳐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기상을 과시하며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원쑤들이 보란듯이 치솟은 려명거리를 비롯하여 보건산소공장과 류경안과종합병원, 평양가방공장 등이 일떠섰는가 하면 대재앙을 당하였던 함북도 북부지역에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이 펼쳐졌다. 그리고 온 나라가 황금해소식으로 흥성거리였고 고산땅을 붉게 물들이며 가지마다에 주렁진 사과들이 온 나라에 과일향기를 안아왔으며 녀자축구선수들은 2개의 월드컵을 련이어 들어올리는 통쾌한 체육신화를 창조하였다. …

돌이켜보기만 하여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성과들이다.

적들의 방해책동이 악랄해지고 엄혹한 난관이 겹치는 속에서도 군대와 인민이 이처럼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며 하늘이 가져다준 우연도 아니였다.

모든 기적과 승리를 안아온 신비스러운 힘은 다름아닌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위대한 자강력이였다.

일심단결과 자강력이 모든 기적과 승리를 안아오는 비약의 원동력이라면 비약의 원동력에 진할줄 모르는 활력을 더해주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지난해 6월 류경김치공장을 찾으시여서 설계자, 시공자, 운영자들도 미처 느끼지 못하고있던 생산공정의 불합리한 개소들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공장을 우리 나라 김치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1월 또다시 공장을 찾으시여서는 모든 생산공정들이 치차처럼 빈틈없이 잘 맞물려졌다고, 자동화, 흐름선화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실현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공장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또 하나 일떠세웠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자력자강으로 부강조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가는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려명거리건설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3월 려명거리건설을 발기하시고 거리형성안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1월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시여 그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이전의 거리들보다 비할바없이 큰 려명거리건설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진행하고있는것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힘과 한계를 모르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며 최단기간에 완공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혁명적인 대책을 취해주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총진군대오의 진두에 서시여 돌파구를 열어나가시며 조국땅우에 위대한 전변의 새 력사를 수놓아가시였다.

하기에 조국의 천만군민은 비록 길지 않은 한해사이에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을 돌이켜보며 그이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때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반드시 이룩되리라는 신념과 의지를 더 깊이 간직하게 되였으며 그 신념과 의지를 안고 보다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돌진해나가고있는것이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조선중앙통신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에 일떠선 새 거리, 새 마을들에서



금야강군민발전소



류경안과종합병원



국제축구련맹 2016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나라 녀자축구선수들



물고기잡이에서 혁신이 일어났다.







-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하여 -

질좋은 가방을 더 많이



평양가방공장에서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해 질좋은 가방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히 공장에서는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에 의거하여 가방의 질과 함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와 함께 생산자대중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고있다.

현재 공장은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95% 이상 보장하고 원료와 자재의 거의 모두를 우리의것을 리용하여 가방생산을 진행하고있어 생산정상화는 문제될것이 없다. 하지만 상표를 특색있게 만들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가방의 모양과 형태, 색갈을 보다 풍부하게 개선해나가는데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공장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공장의 기술준비실의 기술자들은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가치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으며 도안창작실의 일군들 역시 가방상표와 함께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에 이르는 남녀학생가방의 특성에 맞는 모양과 형태, 색갈을 가진 수많은 도안창작품을 내놓고있다. 그들이 창작한 가방의 천무늬도안, 장식도안, 그림도안 등은 매우 멋있고 특색이 있다.

재단과 재봉, 인쇄, 날염,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들마다에서 종업원들모두는 제품의 질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누구나 자기 자식들의 가방을 만드는 심정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깐지게 진행하는 한편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고있다. 뿐만아니라 설비들을 애호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리고있다.

실장 김남혁은 말하였다.

《우리의 정성이 깃든 이 가방들이 그대로 내 자식과 같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가닿게 된다고 생각하니 볼수록 흐뭇하기만 합니다.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공장을 보배공장이라고 불러주신 그 숭고한 뜻을 늘 가슴에 새기고 공장제품들을 후대들을 위한 인기상품으로 되게 하는데 적극 기여해나가겠습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가방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로동계급들











-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하여 -

인민들의 구미에 맞는 김치를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식생활에서 손꼽히는 부식물로 되여온 김치.

얼마전 우리는 그러한 김치를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는 류경김치공장을 찾았다. 공장은 평양시 대성구역에 자리잡고있다.

우리와 만난 기술준비원 김진학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우리 공장을 찾으시여 사람들이 생긴것이 천태만상이듯이 구미도 다 다르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인민들의 수요를 잘 알아보고 김치를 생산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는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명수준에 맞게 김치를 맛있게 만들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고 일관하게 내밀고있다.

이를 위해 공장의 종업원들은 모든 생산공정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는데 제품의 질이 보장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책임성을 높여나가고있다. 그리고 모든 생산공정들이 흐름선화, 자동화된데 맞게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뿐만아니라 공장에서는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이 인민들의 기호와 요구에 맞는 식품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공정검사체계와 품질관리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부단히 보충갱신해나가고있다.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검사하고있다.



공장의 실험분석실에서는 제품들에 대한 분석, 검사만이 아니라 김치가공방법의 과학화, 표준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적극 내밀고있다.

통배추김치, 깍두기, 어린이영양김치, 총각김치, 양배추김치, 오이김치, 동치미를 비롯한 김치들과 흰곤봉버섯장절임, 느타리버섯장절임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에는 인민들이 인정하고 선참으로 찾는 명제품, 명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이 공장종업원들의 모습이 비껴있다.

남새가공공 김련희는 말하였다.

《우리는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들의 구미에 맞는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겠다. 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이며 세계5대건강식품으로 유명한 김치를 생산하는데서 공장제품이 세계적으로 첫손가락에 꼽히도록 하겠다.》

앞으로 류경김치공장과 같은 김치공장들이 각 도들에 일떠서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전룡진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전망이 좋은 양어사업소

바다련어양어사업소는 전망이 좋은것으로 알려져있다.

수심이 비교적 깊고 물흐름이 좋아 자연정화능력이 높으며 물결이 안온하여 마치 호수를 방불케 할뿐아니라 물 또한 맑고 깨끗하여 해삼, 성게가 계속 늘어나는 등 생태환경도 좋은 곳에 위치하고있는 이 사업소에서는 바다련어양어에 적합한 조건을 토대로 하여 대서양련어를 비롯한 바다양어를 전문으로 하고있다.

주체96(2007)년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자그마한 그물우리를 가지고 대서양련어양어를 시작한 사업소가 오늘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양어의 과학화, 공업화를 실현하여 큰 규모의 바다련어양어생산기지로 되였다.

총 면적이 500여정보이고 년간생산능력이 수천t에 달하는 련어생산기지에서는 련어훈제, 련어알젓, 련어편육 등 가공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푸른 물결 출렁이는 드넓은 수역의 곳곳에는 직경이 15m에 달하는 원형그물우리들이 전개되여있고 바다가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사업소구내에는 현대적인 축양장과 사료가공장 그리고 갖가지 대서양련어가공품들을 생산하는 가공실이 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련어가공품들에 대한 인기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사업소에서는 이외에 칠색송어의 바다양어도 성공하여 해마다 많은 칠색송어를 생산하고있다.

연구사 박철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련어양어와 가공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바다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철저히 보호하며 식물성먹이를 받아들이고 련어가공의 자동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생산량을 늘이는것과 함께 련어가공품의 위생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벌려 올해에 진행되는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물우리상태검사



물고기 가공

글 본사기자 강진성
사진 본사기자 안철룡



종합조종실



사료가공장



축양장



방직공처녀들이 즐겨찾는 료리실습장

천짜는 로동자처녀들이 음식만들기를 익힌다. 의미가 있다. 매우 흥미있는 일이기도 하다.

얼마전 우리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과 나란히 서있는 료리실습장을 찾았다.

몇년전에 멋들어지게 일떠선 로동자합숙에 이어 최근에 호텔의 주방도 부럽지 않게 꾸려진 료리실습장은 2층짜리 건물에 10여개의 실습실들로 되여있다.



1층에 들어서니 한 녀성이 부식물창고에서 몇명의 처녀들에게 닭고기며 여러가지 조미료 등을 내주고있었다. 료리실습장책임자 김례영이였다. 그는 앞으로 가정을 꾸려야 할 처녀들에게 있어서 합숙생활을 하면서 하기 힘든 음식만들어보기를 이 실습장에서 하게 되니 합숙생처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여가시간이면 이곳을 즐겨찾는다고 하였다.

우리가 3호실에 들어서니 데트론인견천직장 처녀들이 음식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파를 채치고있는 처녀, 돼지고기를 볶고있는 처녀, 분탕볶음을 만들어놓고 맛을 보고있는 처녀…

조리대우에 료리책까지 펼쳐져있는것을 보니 그것을 참고하고있는 모양이였다.

돼지고기볶음료리를 마친 김송이는 《합숙생활을 하다보니 지금까지 음식을 만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휴식일에 집에 가면 부모님들에게 제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쁩니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2층에 올라섰을 때였다.

10호실에서 여러 처녀들이 콩나물볶음을 놓고 눈맛, 입맛이 다 없게 만들어놓았다고 야단을 치고 장본인은 그속에서도 먹을만 한데 뭘 그러는가고 하며 먹어보기까지 하였다.

그래도 그들이 식탁우에 차려놓은 닭고기국밥이며 감자지짐, 버섯볶음 등은 우리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였다. 처녀《료리사》들은 제법 우리를 좌석에 청하기까지 하였다.

기료품직장 성형공 김효금은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흔히 녀성의 미는 얼굴이 아니라 음식솜씨에 있다고 말하군 합니다.

우리 합숙생처녀들이 이렇게 멋들어진 료리실습장에서 시집갈 준비도 할겸 제손으로 구미에 맞는 음식들을 만들어보고있으니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사랑에 더 높은 생산성과를 안아오는것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우리 로동계급이 제일입니다

저는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기사장으로 일하고있는 문학철입니다.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을 맞이하게 되니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불리우며 떠받들리우고있는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긍지스러움으로 하여 가슴이 부풀어 이렇게 붓을 들었습니다.

나라없던 그 세월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던 막벌이군 로동자들을 전설의 천리마에 태워 세기적인 기적의 창조자들로, 시대의 영웅들로 억세게 키워주시고 오늘은 만리마의 속도로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절세의 위인들의 그 믿음속에 오늘 우리의 로동계급은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불리우며 자기의 존엄과 기상, 무궁무진한 힘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습니다. 그속에서 우리 기업소도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단위, 전형단위로 되였습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도시민들의 편리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고 건설과 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여 일떠선 기업소입니다.

우리 기업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3차례, 위대한 장군님께서 2차례나 현지지도하여주신 뜻깊은 기업소입니다.

하기에 저는 기사장으로 임명받던 날 우리 기업소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교시를 다시금 자자구구 따져가며 학습하였고 로동자였던 저를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서 공부시켜 기사, 직장장, 기술부기사장을 거쳐 오늘은 기사장으로까지 내세워준 그 믿음에 꼭 실천으로 보답하리라 마음다지였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그러하였지만 기사장으로 사업하면서 우리 기업소로동계급의 일욕심, 일본



새, 투쟁기풍에 대해 더더욱 깊이 절감하게 되였고 기사장의 임무가 더없이 중요하다는 자각을 시시각각 느끼며 그들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습니다.

실지 우리 기업소로동계급의 애국적헌신성은 보이라화실의 불길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단적인 실례이지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를 접하던 그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실현의 맨 앞자리에 전력공업부문이 있는것을 알고 우리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모두가 격동되여 불도가니마냥 들끓었습니다.

전력문제해결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해야 하며 전력문제를 푸는것은 5개년전략수행의 선결조건이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고리라는 당대회보고의 구절구절이 우리 로동계급의 가슴에 불을 달아주었던것입니다.

기업소의 모든 로동계급과 일군들이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일군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로동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과학기술의 힘과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전력생산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찾았고 그 실천을 위해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음먹고 달라붙으니 상상도 못할 성과들이 이룩되였습니다. 지난 시기에 수입하여 쓰던 내열세멘트보다 더 강도높은 세멘트를 페설물을 리용하여 만들어 열보온재로 쓰게 되였으며 보이라송풍기전동기도 밀페형전동기로 개조하여 전력생산에 더 크게 이바지하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타빈응축기에 쓰이는 접착제도 개발하여 수천kW의 전력을 더 생산하게 되였으며 페설물을 리용한 물처리방법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저희들은 지난해 200일전투기간에 매달 월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수많은 자금을 절약하게 되였고 월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단위, 전형단위로 되였으며 우리 기업소로동계급과 함께 저도 높은 급의 국가수훈을 받는 영예를 지니게 되였습니다.

정말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전진하는 우리 로동계급이 제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과학기술의 힘과 자력자강의 정신 그리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한 강원도사람들의 정신으로만 투쟁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우리 기업소가 전형단위의 앞장에서 계속 혁신해나가도록 하는데서 기수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기사장 문학철

첨단급의 약품과 의료기구개발에 힘을 넣어





조국에서 효능이 높은 첨단급의 약품들과 의료기구들을 많이 개발생산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의학과학기술교류소 연구사들이 그 앞장에 서고있다. 최근에 그들은 심장아민주사약, 인삼나노백금수 그리고 의료기구인 두뇌활성안경 등을 생산하였는데 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실력이 높은 연구집단으로 알려진 그들이 첨단급의 약품과 의료기구개발연구사업을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야말로 헌신분투하고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며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동물성제제약으로 사람의 심장병을 치료할수 있게 만든 심장아민주사약을 개발한 이곳 연구사들인 고일권, 김호, 김명성이 진행한 연구과정이 바로 그러하다.

그들이 심장아민주사약개발에 달라붙었을 때 사실 걸리는 문제, 해결해야 할 기술적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실패를 거듭하고 주저앉은적도 한두번이 아니였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서로 고무하고 지혜와 힘을 합쳐가면서 연구사업을 잠시도 중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몇년간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그들은 끝끝내 주사약개발에서 성공하고야말았다.

새로 개발한 주사약은 사람의 심장관문을 쉽게 통과하여 심근세포의 영양과 활동강화 등에서 놀라운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심장병치료에 널리 리용되고있다.



불면증과 머리아픔, 뇌신경계통질병예방치료에 아주 좋은 첨단치료기구인 두뇌활성안경을 개발한 이곳 연구소 실장 김혁의 연구과정도 다를바 없었다.

그는 이 치료기구를 독점물로 간주하는 일부 나라 전문가들의 코대를 꺾어버리고 더 좋은것을 개발할 야심밑에 이 연구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하기에 그는 처음부터 자기식의 새로운 개발방향과 방법을 내세우고 실현해나갔다. 그러자니 연구사업이 매우 힘에 부치였지만 그는 드세고 완강한 실천력으로 짧은 기간에 100% 국산화된 두뇌활성안경을 내놓을수 있었다. 이 치료기구는 률동이 파괴된 뇌수를 빠른 시간내에 정상으로 회복시키는데서 다른 나라의것보다 훨씬 좋으며 제작원가도 적은것으로 하여 대단히 실리있는것으로 인정되고있다.

연구사 강옥경이 내놓은 젊음을 유지하고 피로를 회복시키며 면역기능을 높여주는데서 매우 효능이 높은 인삼나노백금수 역시 그러하다.

가정부인인 그는 수년간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로 이 음료를 완성하였다고 한다. 그는 현재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첨단약품과 의료기구들을 자체로 개발할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해결해가고있는데 자기 힘을 믿고 달라붙으니 얼마든지 보다 좋게 개발할수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자력자강의 정신력으로 첨단을 돌파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이런 열의는 그만이 아닌 교류소일군들과 연구사들모두의 가슴속에 간직된것이다.

첨단급의 약품, 의료기구개발에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노력은 반드시 보다 훌륭한 성과를 가져올것이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이목을 끄는 국제녀자 축구심판원 리향옥

주체104(2015)년 국제축구련맹의 이목은 2015년 녀자월드컵경기대회 결승단계 최종순위결정경기를 맡아볼 심판원을 선정하는데로 집중되였다.

《국제축구련맹의 결정에 따라 2015년 녀자월드컵경기대회 결승단계 최종순위결정을 위한 도이췰란드팀과 잉글랜드팀간의 경기주심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심판원 리향옥이 임명되였다.》

국제축구련맹 심판국장이 선언하자 심판원들과 기자들의 시선은 일시에 리향옥에게로 향하였다.

놀라움과 부러움, 감탄…

그가 국제심판원이 될 생각을 품게 된것은 주체93(2004)년부터였다고 한다. 그때 선수생활을 그만두게 된 그는 공화국기발이 새겨진 선수복을 입고 푸른 잔디우를 달린 18년을 돌이켜보았다.



로동자가정의 외동딸인 자기에게서 재능의 싹을 찾아내여 꽃피워주고 조국을 빛내이라고 국제경기들에 참가시켜주었던 날들이며 3차례나 아시아녀자축구의 패권을 쟁취하고 공훈체육인의 영예를 받아안던 날…

그때를 회고하며 향옥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국과 축구, 그것은 이미 내 생활의 전부나 같았다. 그래서 국제심판원이 되여 나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조국의 이름을 세계축구계에 떨치고싶었다.》

당시 세계적으로 녀자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녀성심판원들을 요구하고있었다. 그 적임자가 선수생활경력을 가진 리향옥과 같은 체육인들이였다.



국제심판원으로서 나라의 축구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제녀자축구경기대회들에서 조국의 이름을 떨칠 결심을 굳힌 그는 또다시 경기장에 나섰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심판원은 선수들과 감독들, 지어 관중들은 물론 축구경기장의 전반흐름에 결정적영향을 주는 재판관이나 같았던것이다. 그런데로부터 심판원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그는 지적, 육체적, 심리적, 도덕적자질과 능력을 최고의 높이에서 갖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정열적으로 훈련하고 학습하였다. 축구선수들이상의 육체훈련과 밤잠도 잊군 하는 학습으로 지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치는것이 체육인들의 임무라는 자각이 그를 일으켜세우군 하였다. 이런 훈련의 나날 그의 자질과 능력은 나날이 높아갔다.

마침내 주체96(2007)년 1월 국제심판원자격을 받은 그는 여러차례의 국제경기들에서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러나 국제심판계는 아직 그에게 문을 완전히 열어주지 않았다. 한것은 이전 녀자월드컵경기대회기간 절대다수의 경기들 특히 승자전단계나 순위결정을 위한 결승경기들은 많은 경우 유럽심판원들이 심판을 맡아하였던것이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경기심판에 앞서 각팀들의 경기운영방식, 선수들의 특기와 성격, 감독들의 지휘특징 등 여러면의 자료들을 전면적으로 연구하고 그에 따르는 대책들을 세워놓군 하였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2015년 녀자월드컵경기대회와 2016년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녀자축구경기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순간순간 변화되는 경기정황을 정확히 예견하고 앞질러가며 처리하였으며 선수들의 위험한 동작에 대해서는 단호한 선언으로 축구전문가들과 관중들을 경탄시켰다.

그의 심판활동을 지켜본 국제축구련맹의 관계자들과 제노라하는 유럽심판원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리향옥은 우리 국제축구련맹이 자랑할만 한 심판원이다.》, 《현재로서는 그가 녀자축구심판원들의 표본과 같다.》, 《그의 위치차지와 선언들이 정확하고 상당히 멋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심판원들은 아시아축구련맹의 자랑이다.》…

굳어져온 유럽위주의 녀자월드컵심판력사를 깨뜨리고 조국의 이름을 떨친 리향옥.

그는 자기의 재능을 꽃피워주고 영광의 언덕에 내세워준 조국의 고마움에 보답할 하나의 생각으로 오늘도 푸른 주단우를 달리고있다.

본사기자 변진혁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여

평양시의 서성구역 긴재초급중학교는 구역적으로 손꼽히는 모범적인 학교이다.

학교에서는 해마다 실리있는 우월한 교수방법들을 창조하여 새 교수방법등록증과 교편물창안증을 받는 교원, 전국교수교양경험 및 과목별교수방법토론회에 참가하는 교원이 많이 나오고 학생들이 구역적인 실력판정에서도 높은 성적을 이룩하고있다.

교원들의 교수지도능력이 높을뿐아니라 그에 따라 학생들의 학과실력 또한 전반적으로 우수하기로 소문난 학교가 최근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는 사업에서도 구역적으로 제일 앞장에 섰다.

교장 민경주는 이렇게 말하였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데서 일정하게 성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우리 학교 후원단체들과 학교의 모든 일군들과 교원들, 학부형들의 집체적인 지혜와 힘이 합쳐진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교육조건과 환경이 일신되니 학생들의 실력이 더욱 높아가고있다.》

실지 학교에서는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학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따라세우기 위한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데 기초하여 이 사업에 힘을 집중하였다.

학교에서는 우선 일군들과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집체적인 토의끝에 그 실천을 위한 목표부터 하나하나 따져가며 높이 세웠다.

그것은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꾸리고 여러 실험, 실습실들에 교육기재와 설비들을 그쯘히 갖추어놓는것이였다.

학교에서는 교육의 모든 요소들이 학생들의 지적 및 정신도덕적, 육체적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게 꾸려진 평양중등학원을 비롯한 시안의 앞선 교육단위들에 대한 일군들과 교원들의 참관사업을 조직진행하였다. 뒤따라 학교의 교육조건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대책안을 구체적으로 따라세웠다. 교실과 복도의 벽체에 설치하게 될 직관물들, 교육설비들의 배치와 지어 벽체의 장식과 색갈에 이르기까지 콤퓨터로 모의하여 집체토론에 붙이였다.

나라의 문명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담보되며 조국의 미래는 교육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평양수지건재공장을 비롯한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이 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는데 앞장섰다.

학교의 일을 돕겠다고 후원단체들까지 떨쳐나섰는데 학교의 주인인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고 하며 심혜영을 비롯한 교원들이 분발해나섰다. 학부형들은 또 그들대로 자식을 키우는 우리도 한몫해야 한다고 하면서 두팔걷고 도와나섰다.

모두의 진정어린 노력에 의해 짧은 기간에 모든 교실들이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그쯘히 갖춘 다기능화된 교실로 꾸려지게 되였으며 음악무용실, 정보기술학습실, 기초기술실습실 등 실험, 실습실들이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리해하고 실천해나갈수 있게 갖추어지게 되였다.

교육조건과 환경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게 꾸려지니 교육수준과 학생들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으며 그것은 학생들의 학습장에, 성적증에 그대로 새겨지고있다.

나라의 무료의무교육제도의 혜택속에 온 나라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학교 학생들은 마음껏 배우며 지적능력과 창조적능력, 응용능력을 소유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튼튼히 준비해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상식

수지그릇에 우유를 담지 말아야 한다

수지그릇에 보관한 우유는 빛을 받으면 비타민이 많이 파괴되고 맛도 달라진다.

이때 맛변화률은 75%에 이르는데 유리그릇에 보관하면 2%밖에 안된다.

수지그릇에 담은 우유가 24시간동안 빛을 받으면 비타민C는 거의 다 파괴된다.

* * *

수기

영화창조의 나날을 더듬어







저는 조선4. 25예술영화촬영소 배우 백설미입니다.

영화계에 첫발을 들여놓은 신인배우에 불과한 제가 오늘은 온 나라가 다 아는 배우로 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는 조선예술영화 《우리집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후부터입니다.

거리를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마치 제가 《처녀어머니》라도 된듯이 선망의 눈길을 보내군 합니다. 그럴 때면 저의 머리속에는 영화창조의 날들이 떠오르군 합니다.

…

오랜 배우들에게도 쉽게 차례지지 않는 주역을 맡았을 때 기쁨도 컸지만 솔직히 말하여 걱정은 더 컸습니다.

(처녀를 어떻게 어머니로 형상해야 할가. …) 이런 생각을 안고 아무리 영화대본을 읽어보아야 《처녀어머니》를 형상할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연출가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처녀어머니〉라는 부름이 있는가? 아마 사전에도 없을것이다. 그런 처녀를 형상해야 하는데 이렇게 대본과만 씨름하면 안돼지. 아마 주인공원형인 장정화와 같이 생활해보면 방도가 생길거요.》

그리하여 저는 정화가 살고있는 집으로 가게 되였습니다.

처음 만난 정화는 말도 조용조용히 하였고 미소를 지을 때는 몹시도 애티나보였으며 나이도 저보다 3살이나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숙제검열을 할 때에는 엄한 선생님같기도 하였고 아침에 아이들의 식성에 맞게 여러가지 찬을 맛나게 해먹이고 저녁에 하루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이 벗어놓은 옷들을 빨 때에는 다심한 어머니와도 같았습니다.

가정을 가진 녀성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정화는 처녀의 몸으로 하면서도 전혀 힘든 기색이 없이 얼굴에는 늘 웃음이 넘쳐있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그와 나란히 잠자리에 누운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화동무, 힘들지 않니?》

그러자 정화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아니, 힘들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 정을 기울이면서 그것을 힘들다고 생각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난 그 애들의 엄마가 아니나요. …》

순간 《어머니의 정》이라는 말이 저의 뇌리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기울이는 정의 무게를 알게 되였습니다.

드디여 촬영은 시작되였고 저는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정화의 모습을 그대로 영화에 옮겨놓기 위해 애썼습니다.

영화는 강선의 로동자가정의 부모없는 세아이에 대해 알게 된 리정아를 주인공으로 하여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아직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할 나어린 처녀가 부모잃은 아이들을 맡아키울 생각을 하고 그들형제에게 무엇인가 바치려고 애써 노력하지만 아이들은 처녀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영화는 그들을 위하는 정아와 그의 진정을 리해하려고 하지 않는 은정이와의 갈등을 기본으로 하여 흘러갑니다.

오해와 안타까움으로 고민도 많이 하는 정아는 드디여 조직과 집단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힘과 용기를 얻고 은정이네 형제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되였으며 은정이는 정아를 리해하고 자기 어머니의 자리에 그를 세우게 됩니다.

영화는 조직의 추천으로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만나뵙고 《처녀어머니》라는 값높은 이름을 받아안은 주인공이 강선사람들의 뜨거운 환영속에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의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이라고 목메여 격정을 터뜨리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한가정의 소박한 이야기로 시작되여 모두가 친형제로 화목하게 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대가정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영화는 제15차 평양국제영화축전에서 특별영화상을 수여받았으며 저는 배우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영화가 성공한것은 결코 문학이 좋거나 배우의 연기가 잘되여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데 있습니다.

저는 영화의 주인공역을 맡아하면서 장정화의 정신세계를 배우게 되였으며 일심단결의 화원인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집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조선4. 25예술영화촬영소 배우 백설미

영화의 원형인 장정화의 가정



상식

경연

경연은 국왕에게 필요한 지식을 강의하는 사업을 맡아보던 기관을 말한다.

조선봉건왕조시기 통치배들은 봉건적통치기구를 재정비하면서 왕에게 최고통치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도덕을 가르치기 위하여 상설기관인 경연을 설치하였다.

경연에는 의정들이 겸임하는 령사(정1품) 3명과 지사(정2품), 동지사(종2품) 각각 3명, 승지와 홍문관의 부제학이 겸임하는 참찬관 7명, 홍문관의 직제학 이하 관리들이 겸임하는 시강관(정4품), 시독관(정5품), 검토관(정6품), 사경(정7품), 설경(정8품), 전경(정9품) 등이 있었다.

《경연》은 국왕에게 강의하는 이름으로도 쓰이고 강의하는것, 강의장소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씌였다.

경연에서 진행된 강의들에서는 주로 유교경전에서 인민들을 억압착취하며 봉건적의식을 차리는데 필요한 문제들이 취급되였다. 경연에는 왕과 함께 고위급대신들이 참가하였기때문에 봉건유교사상에 대한 강의와 함께 현행정치문제들이 토론되고 결정되는 때가 많았다.

* * *

탐구와 열정에 넘쳐

걸어온 행복한 자욱을 회억할 때만큼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은 없을것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덕천시인민병원 고려부원장 림진궁은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다가도 저도 모르게 흘러간 인생을 돌이켜보군 한다.



림진궁

일본의 도꾜도 스미다구에서 아버지인 조선사람 림학이와 어머니인 일본사람 스가노 요시꼬의 몸에서 6남매의 둘째딸로 태여나 어릴적부터 스케트를 잘타 손꼽히던 일이며 돈이 없어 병원문앞에도 못 가보고 두 오빠와 언니를 련이어 잃고 목놓아울며 《진궁아, 넌 이다음 꼭 의사가 되여 사람을 살려라.》하고 곡성을 터치던 부모들의 눈물겨운 모습, 남은 세자식이라도 살려야 하겠다며 서둘러 귀국선에 오르는 부모들을 따라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던 잊을수 없는 일들…

진궁은 조국의 품에 안겼으며 부모들이 바라던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였다. 그것도 고려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되였다.

고려의사가 된데는 어머니(림방실)의 권고가 있었기때문이였다.

《진궁아, 너는 비록 일본사람인 이 엄마의 품에서 태여났지만 네 몸에는 아버지의 피, 조선사람의 피가 흐른다. 그러니 너는 꼭 의사가 되여도 조선민족의 넋이 깃든 고려의사가 되길 바란다.》

하여 진궁은 의사가 된 후에도 어떻게 하면 민족의 넋이 깃든 고려의학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환자치료에 적극 활용하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그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도 고려치료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천연재료에 기초한 효능높은 약품개발에 정열을 쏟아부었다.

얼마후에 그는 고혈압예방약과 뜸으로 담낭기능운동실조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비롯한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을수 있었다.

고려의사가 되여 몇해 흘렀을 때 그는 일부 나라들에서 동방의 전통약발생지는 저희들이라고 하면서 이 분야에서는 자기 나라를 따를 나라가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는데 대해 알게 되였다.

민족적자존심이 솟구친 그는 우리 선조들이 이룩하여놓은 전통적인 고려약과 치료방법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풍부화시켜 제노라 하는 그들을 눌러놓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연구성과는 눈에 띄게 나타났으며 그의 성과는 널리 소개되여 의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당장 박사론문을 쓸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시마가 고혈압병에 좋다고 하신 교시를 접하게 되였다. 순간 그는 자그마한 성과에 도취되여 벌써 명예부터 생각한 자신을 타매하며 주저없이 그 연구에 달라붙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8살, 당장 시집가도 늦은 나이였다. 하지만 그는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한 다음 시집을 가겠다며 연구사업에 모든것을 바치였다.



친혈육의 정으로 환자들을 돌보고있다.

이렇게 세월은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나갔다. 홍안이였던 진궁이도 40살을 가까이 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육체와 넋을 깡그리 바쳐서라도 기어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려는 진궁의 열의는 보다 높아만 갔다. 주저와 답보를 모르는 완강한 노력끝에 그는 그때로부터 4년후, 결국 40대에 이르러서야 연구사업에서 성공할수 있었고 가정도 이루었다.

당시 림진궁이 올린 다시마엑스가루약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며 그에게 2차례의 치하교시를 주시였으며 공업적방법으로 그것을 생산하도록 현대적인 공장까지 짓도록 하여주시였다. 지금 이 약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대단하다. 조국인민뿐아니라 몇해전 이 약을 써본 벨라루씨의 어느 한 기업가는 효능이 대단하다고 만족해하면서 전통약분야에서 조선은 세계 1부류에 속한다고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불타는 탐구로 한생을 불같이 산 그는 그후에도 수많은 효능높은 고려약과 치료방법, 치료기구를 내놓았으며 가치있는 론문, 도서들을 집필하였다. 뿐만아니라 환자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지니고 치료사업을 진행하여 현대의학도 죽음을 선고하였던 많은 환자들을 소생시켰다.

나라에서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높은 급의 훈장들을 수여하였으며 조선지식인대회를 비롯한 많은 대회들에 대표로 불러주었다.

그는 오늘도 민족의 우수한 고려치료방법으로 환자들에게 건강의 기쁨을 안겨주는것을 더없는 락으로 여기며 환자치료사업에 전심전력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남편과 함께

상식

고구려사람들의 상무적기풍

고구려사람들은 나라의 방위를 가장 영예로운 일로 생각하고있었기때문에 어려서부터 무술을 배우고 일상적으로 무술경기들을 진행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의 상무적기풍은 우선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 달리기와 칼쓰기, 씨름과 손치기(수박) 등 무술련마를 생활화하고 그것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한데서 나타났다. 고구려에서는 마을에 《경당》이라는것을 세워놓고 결혼전 청소년들이 모여서 글공부도 하고 무술훈련도 하였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주몽전설》과 《류리왕전설》 등은 고구려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활쏘기, 칼쓰기를 잘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고구려사람들속에서의 상무적기풍은 또한 민간오락과 경기들도 모두 무술을 기본으로 한데서 나타났다. 고국원왕릉, 씨름무덤, 덕흥리무덤 등 고구려무덤의 벽화들에는 사냥과 사냥경기, 말타기와 활쏘기경기, 달리기와 씨름, 손치기와 같은 민간오락과 경기장면들이 실감있게 그려져있는데 이것은 고구려사람들이 민간오락과 경기들도 다 무술을 기본으로 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사람들의 상무적기풍은 또한 사람들을 평가하고 등용하는데서도 무술을 중요하게 본데서 나타났다. 고구려에서는 매해 삼월삼짇에 락랑언덕에서 왕의 참석하에 5부의 군사들과 인민들이 떨쳐나서 사냥경기를 하였는데 사냥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을 장수로 등용하군 하였다.

고구려사람들속에서 높이 발양된 상무적기풍은 애국심의 발현으로서 그 어떤 침략자들과도 능히 맞서싸워이길수 있는 군사력강화의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 * *



뜻깊은 사연을 전하는 고장에서



남포항의 일부

얼마전 남포시 항구구역을 찾았을 때 우리는 몇해전 조국을 방문한 해외동포들속에 이곳과 특별히 인연이 깊은 한 동포가 있었다는데 대해 알게 되였다. 그 동포가 다름아닌 일본에서 살고있는 류진근로인이였다.

수십년만에 조국의 여러곳을 돌아보는 동포의 얼굴에는 시종 기쁨이 어려있었다. 하지만 자기가 태여난 곳인 남포시 항구구역 하대두동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기쁨이 어려있던 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하였다. 분명 있어야 할 제련소가 없었던것이였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동포는 정확히 기억하고있었다. 사실 동포의 말대로 그곳에는 남포제련소가 있었다. 그러던것을 나라에서 제련소에서 나오는 폐설물이 생태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아예 없애기 위해 제련소를 완전히 폭파해버리였다. 제련소에 제진 및 려과시설이 갖추어져있었지만 인민의 복리증진을 제일로 여기는 조국에서는 단연코 없애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던것이다.

이것을 알고 동포는 몹시 흥분하여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과시 우리 조국에서만이 있을수 있는 인민을 위한 사랑의 사변이 아닐수 없다. 해방직후 우리 수령님께서 오늘의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시고 거기에 있던 일제가 만들어놓은 살인적인 원철로를 흔적도 없이 폭파해버리도록 하시더니…

그런데 남포제련소 역시 인민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여 없애버렸다니 참으로 감동을 금할수 없다.》

그러면서 동포는 고향땅이 정말 몰라보게 변했다고, 환경이 깨끗하고 공기도 맑으며 거리와 마을도 멋이 있다고, 조국에 와서 강하게 느끼는것은 내 조국이야말로 진짜로 인민을 위한 세상이다고 말하였다.

실지 남포시 항구구역은 항구문화도시의 얼굴이라고 할만큼 새롭게 변모되고있다.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가지 형식의 건물들과 살림집들, 학교와 유치원, 특색있는 편의봉사시설 등이 조화로운 구획을 짓고 솟아있고 저녁에 거리를 거닐면 그것은 그것대로 깊은 정서에 잠겨들게 한다. 아마 남포항에서 들려오는 배고동소리까지 마음을 흔들어 그러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구역안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상대두동에 사는 류정옥의 집에 들리였다. 해빛이 골고루 비쳐드는 3칸짜리 집은 공동살림방, 부모방, 부부방, 부엌 등이 생활에 편리하게 설계되여있었다. 집주인은 집이 좋다고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몇해전 일본에서 살고있는 삼촌이 왔댔는데 이 집을 보며 하는 말이 나라에서 거저주는 집이라고 하여 응당한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답니다.》

우리는 구역에 있는 은정원에도 들려보았다. 종합적인 편의봉사시설과 식당을 갖춘 이곳으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있었다. 특히는 특색있게 꾸려진 조선옷매대가 사람들로 붐비고있었다. 이곳 책임자 임송미는 자기들이 지난해 전국조선옷전시회에서 우승하여서인지 조선옷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나날이 높아진다고,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문봉사를 받고있다고 하였다.

이어 우리는 학생들의 교수교양에서 전국적인 모범을 보여주고있는 항구구역 영웅한두초급중학교와 뛰여난 재간둥이들을 많이 키워내는 해안유치원도 찾았다. 특히 해안유치원에서는 교원들의 자질이 매우 높았다. 그런것으로 하여 이 유치원어린이들은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에 참가하여 여러 부문에서 우승한다고 한다.

남포에서, 항구구역에서 첫손가락에 꼽아야 할 곳은 남포항일것이다. 지금 이곳 사람들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두해전인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면서 40t집함기중기를 자체로 제작한 그들은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지난해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 항작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자강력1》호항만기중기를 또다시 제작하여 자기 고장 인민들을 위해 바쳐온 나라의 은정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있었다.

뜻깊은 사연을 안고 끝없이 변모되는 남포시 항구구역의 밝은 래일을 그려보며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항구구역의 저녁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길시지부 김미자동생 앞

상봉의 그날을 그리며

동생, 그동안 잘 있었소.

동생이 조국을 다녀간지도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소. 한해, 두해 나이를 먹어 이젠 여든이 되고보니 멀리에 있는 동생생각이 나날이 간절해지누만. 그래 그간 소식이라도 적어보내려고 펜을 들었지만 오래간만에 편지를 쓰자니 무슨 말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구만.



동생, 생각나오? 주체78(1989)년 평양에서 우리가 근 40년만에 상봉하던 때가 말이요. 그때 어릴적모색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버린 동생의 모습을 보며 기쁨보다도 슬픔이 앞선 나였소. 이 언니라는게 동생을 잘 돌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막 미여지는것만 같았소.

해방전 어린 나이에 부모님들을 잃고 친척들집으로 뿔뿔이 헤여져가 살던 우리 형제들이 미제가 일으킨 전쟁란리통에 서로 생사여부조차 모르고 오래동안 마음써왔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소.

정말이지 그 일을 회억하면 눈물이 나오고 우리 후대들이 다시는 그런 비극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드오.

동생, 우리 가정은 여전하오. 나도 일없고 자식들도 모두 건강해서 일을 잘하고있소. 이제는 증손자까지 거느린 증조할머니가 되고보니 기쁘기 그지없소.

평양에서 살고있는 맏딸 정옥이가 이젠 할머니가 되였소. 참, 지난해 임자 딸 혜영이가 조국에 왔다가 첫돌이 되는 정옥이네 손자 혁성이를 보고 갔다오. 그때 혜영이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잘 되였더구만. 아마 동생도 그 사진을 보고 기뻐했을거요.

나와 같이 살고있는 둘째딸 정란이는 말은 일에 여간 극성이 아니라오. 지금 그 애는 년로보장을 받을 나이가 지났지만 아직도 초급중학교에서 수학교원을 한다오. 그 애 교원년한이 33년이나 되오. 그동안 정말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지. 군관, 과학자, 교원, 의사 등 각이한 부문에서 일하는 제자들이 많소. 그 애 생일날과 명절날이면 제자들이 찾아오는데 모두가 얼마나 대견하고 끌끌한지. 그럴 때면 딸자식에 대한 긍지가 저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생겨난다오.

지금 정란이는 자기 같은 교육자들에게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애를 많이 쓴다오.

연탄군에서 살고있는 정필이와 내 곁에서 살고있는 정금이네들도 다 잘 있소. 그리고 군사복무를 하고있는 아들 원춘이네도 잘 있다오.

동생,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편지에 다 담을수는 없구만.

동생, 조카들이랑 다 데리고 한번 조국을 다녀가면 좋겠소. 동생과 그동안 있었던 사연들을 다 터놓고 이야기로 밤을 새우고싶구만. 마음편히 동생과 마주앉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가는줄 모르고 기쁘게 지낼 그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소. 나도 이젠 나이가 들고보니 동생생각, 조카들생각이 절로 나고 언제면 또 한번 동생과 단란하게 모여앉을수 있겠는지 늘 그 생각뿐이라오.

혜영이와 희웅이에게도 내 인사를 전해주오. 애국의 길을 걷는 그 애들이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동생도 이젠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건강에 주의하길 바라오.

황해북도 사리원시 선경동 24인민반
김인실언니로부터

멋있는 고국



4년만에 고국에 다시 와보았다. 그동안 참으로 많이 변하였다.

고국에서는 하나를 건설해도 인민의 지향과 민족적정서에 맞게 그리고 세계적수준에서 아주 멋있게 건설하고있다는것이 눈에 뜨이게 알리였다.

과학기술전당이며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하여 그 어디를 다녀보아도 멋있는 고국이라는 찬사가 나의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다.

걸볼안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비약하는 고국의 모습이 응축된 과학기술전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하나 설계하고 창조해도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인민의 리익과 편리를 먼저 앞에 놓고 세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해놓은것을 보고서는 정말 느끼는바가 컸다.

오늘날 고국에서는 지난날의 천리마속도가 만리마속도로 높아졌다. 이 속도로 냅다 달린다면 조선은 멀지 않은 앞날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능히 점령할수 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회주의강국건설념원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고국땅에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그이의 령도를 떠나서는 세계를 향해 멋을 떨치는 고국의 오늘이 없으며 래일에 대해 기약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해외에서 살고있지만 안해와 함께 고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적은 힘이나마 다 바쳐나가겠다.

중국 료녕성 단동시
류덕룡

민족의 넋이 꽃피는 곳



고국에 한번 와보고싶던 소원이 이제야 풀렸다. 정말 고국이 그리웠다.

나이 일흔에 로친과 함께 고국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모든것이 풍요하고 자유로우며 문명한 고국의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니 마음마저 흐뭇해졌다.

그가운데서도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인민대학습당, 평양지하철도와 같은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은 나의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한것은 모든것이 웅장하면서도 무게있게 세워져있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정치리념이 집대성되여있기때문이다.

나의 놀라움은 거기에만 있지 않았다.

고국에 체류하는 동안 늘 맛있게 먹은 식사도 조선민족음식들이여서 더욱 감동되였다. 국수, 김치, 떡, 록두지짐, 소불고기, 토장국과 같은 음식들은 나의 입에 꼭 맞았다.

고국의 인민들이 음식문화, 옷차림문화, 생활문화 등 세상에서 제일 우수한 우리 민족의 전통을 적극 살려나가고있는것도 나의 마음에 꼭 들었다.

길지 않은 고국방문의 나날 나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의 우수성을 적극 살려나가는것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구현하는데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가를 깊이 인식하게 되였으며 민족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해나가는데서도 큰 몫을 차지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참으로 고국은 조선민족의 넋이 꽃펴나는 땅이다.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
리동진

진달래를 노래하는 동포가수



황영애

봄이 오면 갖가지 꽃들이 아름다운 망울을 터친다. 봄의 선구자로 일컫는 진달래는 조국인민들의 마음속에 그윽한 정서와 환희를 안겨주며 조선의 봄을 불러, 조국의 넋을 불러 붉게 피여나고있다. 해외에 있어도 그 아름다운 진달래를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있는 사람들속에는 중국 연길시에서 살고있는 연변조선족문화관 배우 황영애동포도 있다.

그래서인지 진달래처럼 아름다운 그의 목소리는 연길동포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그가 고향과 민족을 노래하고 특히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히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진달래》를 감동깊이 노래할 때면 사람들은 참으로 깊은 감흥을 금치 못해한다.

그는 재능있는 대중가요가수일뿐아니라 노래가사도 직접 쓰는 창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백두산에 피여난 진달래의 향기가 이역만리 타향에도 새봄을 안아왔다는 내용의 가사 《4월의 봄이 왔네》를 쓰고 선률에 담아 격조높이 구가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조국에서 열리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서 그는 진달래와 관련된 노래들을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영예의 금상을 수여받았다.

그가 이렇게 자기 고국,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깊이 가지게 된데는 그의 부모들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그의 부모들은 이역땅에서 나서자란 영애가 조선민족임을 알도록 민족의 정신을 심어주었으며 연길땅에 깃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그분들이 항일전의 나날 조국을 그리며 그토록 사랑하신 진달래에 대하여 하나하나 이야기해주었다.

영애가 나서자란 연길땅에는 가는 곳마다에 항일혁명전적지가 있고 붉고붉은 진달래가 활짝 피여나고있다. 이 모든것들은 영애에게 민족의 절세위인들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흠모심을 심어주었으며 가슴속에 진달래를 소중히 새겨안게 하였다. 이렇게 성장한 그였기에 그는 높고 험한 산을 넘어 수십수백리길을 오고가며 중국땅에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발자취가 어린 항일혁명전적지들을 답사하였고 자기의 마음을 담아 진달래를 떠서는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주변에 정히 심기도 하였다. 그리고 태양절, 광명성절을 맞을 때면 경축행사장에서 진달래에 대한 노래를 격조높이 구가하며 절세의 위인들을 흠모하는 자기의 진정을 터쳐놓았다.

뿐만아니라 고국을 방문하여서는 자기의 마음이 깃든 진달래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는 만수대언덕에 정히 심었으며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아서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녀사의 반신상에 활짝 핀 진달래꽃을 삼가 드리고 마음속결의도 다지였다.

찬서리를 이겨내고 피여나 봄소식을 먼저 알리는 진달래를 마음속에 안고 민족의 태양을 받들어 충정의 귀감으로 사신 녀사처럼 살리라고.

그는 오늘도 자기의 그 결심을 드팀없이 실천해나가고있다. 지난해에도 그는 자기의 진정이 어린 진달래를 고국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에 심었다고 한다.

사람이 해외에서 민족의 넋을 고이 지니고 살아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우기 세계도처에 민족의 넋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생각해볼 때 자기 민족이 낳은 절세의 위인들을 언제나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자기의 진정을 다 바치는 황영애동포야말로 참으로 돋보인다.

본사기자 강경수

유모아

발견의 비결

선생이 학생들에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실을 이야기하며 《뉴톤이 사과나무밑에 앉아있다가 사과가 자기 머리우로 떨어지는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묘한 일입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한 학생이 《옳습니다. 그가 우리처럼 교실에서 책만 들여다보고 앉아있었다면 아무것도 발견할수 없었을것입니다.》고 말하였다.

*　*　*

단결된 힘으로 전진하는 애국운동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일본반동들의 날로 우심해지는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일본반동들은 각종 사건들을 날조하여 총련의 각급 기관들과 동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에 미쳐날뛰였다. 나중에는 조선학교가 자리잡고있는 각곳의 지사들에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지급에서의 류의점》이라는 통지서를 보내고 지방자치체들에 압력을 가하여 보조금지급을 금지시키려고 하였다. 우익깡패단체들도 《총련을 일본에서 내쫓겠다.》고 고아대며 련일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광풍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적신념은 흔들수 없었다.

일본당국이 재일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지급정지를 강행해나서자 재일조선학생들의 어머니들은 이를 반대하는 긴급집회와 일본당국의 차별책동을 규탄하는 항의행동을 전개하였다. 오사까조선학원 성원들과 재일동포들도 조선학교에 대한 오사까지방재판소의 차별적인 판결에 항의하여 기자회견, 성명, 집회 등으로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일본정부의 속심을 낱낱이 폭로하였다. 곳곳에서 벌어진 집회와 시위투쟁현장들은 일본반동들의 무지막지하고 횡포무도한 탄압책동과 전대미문의 인권유린행위에 맞서 끝까지 싸워 자기들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려는 동포들의 견결한 의지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일본당국이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를 걸고들며 총련중앙회관앞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란동을 부릴 때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그에 대처하여 강력한 대응책들을 취해나갔다.

총련중앙은 조국의 자위적조치들의 거대한 의의를 동포들속에 보다 광범히 해설침투시키는 한편 총련조직들과 각급 기관들, 동포들과 학생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직적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리고 총련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치기 위한 100일집중전을 조직수호전, 조국보위전으로 더욱 박력있게 벌려나가면서 일본당국과 우익반동들의 파쑈적만행에 단호히 맞서나갔다.

한편 총련중앙과 중앙단체와 일군들은 일본당국의 공화국에 대한 《단독제재》강화의 부당성을 기자회견, 담화, 성명 등을 통하여 세계앞에 발가놓았다.

특히 재일동포학생들은 일본법무성앞에서 일본당국의 대조선《단독제재》를 반대하는 항의행동을 조직전개하여 자기들의 애국적기상을 크게 시위하였다. 그들은 인적래왕의 규제조치를 비롯한 대조선《제재》조치를 철회하며 재일조선인들의 제반 권리를 적극 보장할것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경찰들이 총련산하의 경제단체사무소들을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을 때에도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상공회관앞에서 경찰당국의 천만부당한 정치적탄압책동을 규탄하는 항의운동을 전개하면서 강력히 맞서 투쟁하였다.

뿐만아니라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북남관계와 민족의 통일운동을 가로막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북침핵전쟁소동을 규탄하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도 강도높이 벌리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세력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핵전쟁도발책동, 보수패당의 사대매국행위에 대한 폭로선전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싸드》의 남조선배치책동과 공화국녀성들에 대한 집단유인랍치행위, 련석회의개최를 가로막은 괴뢰보수패당의 반통일책동을 규탄하는 여론전도 힘있게 전개하였다.

새 세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일본주재 미국대사관, 남조선괴뢰대사관, 일본외무성, 《민단》중앙본부앞과 그 주변에서 미국과 남조선보수패당의 침략전쟁소동과 반통일책동을 단죄하는 항의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전개하였다.

일본반동들은 끊임없는 박해와 살벌한 탄압소동으로 총련조직과 동포사회를 와해분렬시키려고 꾀하였지만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영예를 안고 꿋꿋이 살며 싸워나가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재일조선인운동을 말살하고 동포들의 민족성을 거세하려는 이역의 광풍은 사납지만 애국위업의 대하는 도도히 굽이치고있다.

본사기자 진룡진



고국방문

아름다운 금강산경치에 반해

-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대표단 -







지난해 9월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대표단 성원들이 다양하고 웅장하며 수려하고도 기이한 천태만상의 자연경관을 이루고있는 조선의 명산 금강산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김영녀, 김권, 박정일, 박정호, 김송미, 한성옥 등 동포들은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와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오는 금강산의 경치에 반하여 연방 터져나오는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은 생김새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태의 물체들을 한곳에 모아놓은것 같다 하여 이름지어진 만물상에 올라 깎아지른듯 한 층암절벽과 천태만상의 기암괴석들을 보았는가 하면 폭포벽높이 약 100m, 폭포의 높이 74m, 너비 4m나 되는 아름다운 구룡폭포와 그아래에 깊이 13m되는 절구통같이 패인 돌확에 푸른 물이 소용돌이치는 구룡연도 보았으며 옛날 유점사늪에서 쉰세마리의 괴물과 싸운 아홉마리의 룡이 살았다는 전설도 들었다.

그런가 하면 옛날 어떤 왕이 하루동안 놀려고 왔다가 경치가 하도 좋아 3일동안 놀고 갔다고 하는 삼일포에서 장군대와 금강문, 거북바위 등 명소들을 돌아보고 해변가에서 유희와 배구경기도 하면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냈다.

자연의 모든 아름다운 명승을 한곳에 모아놓은 명승지의 집합체를 이룬 금강산의 경치에 반해 보낸 날들은 동포청년들의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15세기 군사지휘관이며 기술자였던 리천

리천은 경상도 례안의 무관집안에서 태여난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되려고 하였다. 그는 27살때에 무과시험에 합격하였으며 35살때에는 다시 무과시험에 합격하여 정식 무관이 되였다.

그는 그후부터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서 명성을 떨치였다.

그가 건주위녀진의 침공을 쳐물리치는 싸움에 참가하였을 때였다. 그때 앞서 싸움에 나섰던 최윤덕이 많은 병력으로 건주위녀진의 소굴을 소탕하는 작전을 벌리였으나 적들의 준동을 완전히 분쇄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조선봉건정부는 평안도도절제사로 있던 리천에게 군사를 주어 이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조선봉건정부의 령을 받은 리천은 1437년 원정군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동가강을 지나 건주위녀진의 소굴인 올라산성을 공격하여 적을 완전히 소탕해버리였다. 이 전투에서 그가 발명한 화약무기인 화포가 전투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한다.

그의 생애에서 과학과 기술발전에 쌓아올린 공적 또한 크다. 당시 15세기는 생산이 급속히 발전하고 농학, 천문학, 력학, 수학, 음악, 의학, 군사학 등 과학문화발전에서 봉건문화의 일대 개화기를 이룬 시기였다.

그는 출판인쇄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정력을 기울여 1420년에 새 활자를 주조하였으며 이로써 당시 서적출판사업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하였다. 이 활자는 구리로 주조되였는데 1403년에 주조한 활자 《계미자》에 비하여 작으면서도 정교하고 우수하였다. 이 활자를 1420년의 간지를 붙여 《경자자》라고 불렀는데 큰것과 작은것의 두 종류가 있어 더욱 편리하게 많은 책을 찍어낼수 있었다.

그후 1434년에 《경자자》를 다시 개량하여 20만개나 되는 《갑인자》를 만들었는데 이 활자는 글자체가 더 깨끗하고 단정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9월부터는 《갑인자》로 《동국통감》, 《삼운통고》 등 많은 책을 인쇄하였다.

리천의 활자에 대한 탐구와 창조적노력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갑인자》가 나온지 2년후인 1436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연활자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는 또한 종래의 자판에 밀(누런초)을 녹여붓고 밀이 굳기 전에 활자를 박아서 고정시키는 방법대신에 자판에 활자를 세운 다음 그사이에 대나무쪼각을 끼워 활자를 고정시켜 인쇄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보급시켰다. 이것은 현대적인 조판방법의 시원으로 되였다.

이와 같이 리천은 1234년이전에 발명된 고려의 금속활자를 크게 발전시켜 세계최초의 연활자와 현대적조판기술의 원형을 창조하였다.

그의 높은 기술과 지식은 천문관측기구를 창안제작하는데서도 높이 발휘되였다. 그는 당시 유명한 기술자들과 함께 1443년 천문관측기구인 혼천의를 제작하였으며 자동물시계를 비롯한 각종 해시계, 천체좌표측정기구인 간의 등 수많은 천문관측기구를 창안제작하는데서도 주동적역할을 하였다.

리천은 15세기 나라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사업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 * *

《동의수세보원》

《동의수세보원》은 4상의학을 처음으로 내놓은 의학자 리제마에 의하여 1894년에 편찬된 우리 나라의 독특한 4상의학리론들과 치료법들을 써놓은 고려의학책이다. 리제마의 제자들에 의하여 1901년에 활자본으로 출판되였으며 그후 10여차례나 다시 출판되였다.

편찬자는 매개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상에 속하는가를 알고 병을 예방하거나 제때에 쉽게 고치도록 도움을 주자고 이 책을 편찬하였다.

《동의수세보원》은 4권 2분책으로 되여있다. 저자 리제마(1837년-1900년)는 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자기의 실제 치료경험에 기초하여 4상의학의 학설을 새롭게 제기하고 그를 림상치료사업에 도입하였다.

4상의학이란 사람들을 체질적특성에 따라 4가지형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병을 치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체질의학이다. 책의 내용을 보면 제1권에는 성명론, 사단론, 확충론, 장부론 등 4상의학의 리론들이 씌여져있다.

제2권에는 의원론과 소음인병론들, 제3권에는 소양인병론들, 제4권에는 태음인과 태양인 병론들과 광제설, 4상인병증론 등이 씌여져있다.

이 책에는 4상의학 즉 사람의 체질을 4가지형(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으로 나누고 같은 병이라도 해당 체질에 맞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저자의 견해가 밝혀져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또한 약을 쓰는데서 주의할 점과 여러가지 복방, 단방처방들을 주는것과 함께 자신이 고려의학고전처방들을 가지고 4상인형에 맞게 갈라서 치료한 경험, 그에 따르는 처방들을 서술하였다. 《동의수세보원》은 종래의 의학책들에서 잘못 규정된 병의 원인과 치료처방들을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게 고쳐놓았고 많은 새 처방들을 첨부하여놓았다.

이 책에 서술된 리제마의 4상의학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새로운 학설로서 당시 우리 나라 고려의학발전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책에는 사람의 체질을 4상으로 분류하는 객관적지표를 명백하게 규정하지 못하였고 체질과 약들을 도식적으로 구분하여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 그리고 일부 비과학적이며 비현실적인 내용들과 비위생적인것들이 치료약제로 씌여있는 부족점들도 있다.

* * *

은항아리

옛날 어느 한 고을에 마음이 정직하고 대가 바른 녀인이 아들형제를 데리고 살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갑자기 친정오라버니에게 집으로 와달라고 기별을 보내여 남매가 마주앉았다.

녀인은 오라버니에게 인사를 하고나서 《래일이라도 당장 시골로 이사를 가야 할텐데 오라버니가 좀 도와줘야겠어요.》 하고 청하였다.

너무도 뜻밖의 일인지라 오라버니도 이상히 여기며 왜 갑자기 이사를 가려는가고 물었다. 그러나 녀인은 리유는 말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만 해달라고 졸랐다.

이렇게 되여 녀인은 오라버니의 주선으로 고을에서 몇십리 떨어진 산간마을에서 뽕나무가 번성하고 삼밭터전을 가지고있는 집 한채를 사서 이사를 하였다.

녀인은 아들형제와 손을 맞잡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다.

두 아들도 근면하고 굳센 어머니의 성품을 배워 대바르게 자라났다.

어느날 어머니는 아들들과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얘들아, 하늘이 푸른것은 무엇때문인지 아느냐?》

《그것은 애초에 푸르게 생겼으니 푸르지요뭐.》

《아니다. 하늘이 푸른것은 그것이 끝간데없이 높기때문이란다. 그러니 너희들도 저 하늘처럼 뜻을 높이 세우고 마음을 깨끗이 닦아서 장차로 큰사람이 되여야 한다.》

이처럼 녀인은 날으는 새, 흐르는 물, 피는 꽃 그 무엇이든 아들들의 교양에 리용하였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녀인은 환갑을 맞게 되였다.

어머니의 환갑상앞에는 어엿한 대장부로 자란 두 아들과 오라버니가 앉아있었다.

《오라버니, 오늘에야 20년전 고을에서 이곳으로 갑자기 이사하게 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때 오라버니를 청하던 며칠전 일이였어요. 그날 소낙비가 오고난 뒤 처마밑에 락수물 떨어지는 소리가 하도 이상하기에 가서 땅을 파보았더니 솥뚜껑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솥뚜껑을 제치고보니 그밑에 항아리가 묻혀있고 항아리안에는 은붙이들이 가득 차있었어요. 그 은붙이들을 판다면 일확천금하여 벼락부자가 될거예요. 나는 그 재물이 무서워서 얼른 파묻고 이사를 한거예요.》

《그랬군. 참, 동생은 너무 고정한게 탈이요. 그거야 하늘이 준건데… 그걸 가지면 아버지없이 자라는 아들들이 굶주리며 참혹한 고생을 면했을걸. …》

《횡재란 무릇 내 공력이 들지 않은 재물로서 의롭지 못한거예요. 나는 일찌기 의롭지 못하고 공력을 들이지 않은채 자식을 참되게 키웠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나는 내 피땀으로 이루어진 재물만으로 자식들을 키워왔어요. 그것만이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참된 사랑이고 지성이고 도리라고 믿어요.》

녀인의 말은 끝났으나 방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다.

오라버니도 두 아들도 누이동생, 어머니의 그 높은 지조와 정직한 성품앞에 모두 머리를 숙이였다.

* * *

고구려의 사상과 종교

고구려에서는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이 강화되고 과학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진보적인 사상과 함께 륜리도덕적견해들이 발전하였다. 뿐만아니라 지배계급의 리익을 대변하는 여러가지 종교, 신앙이 장려되고 그에 따라 진보적인 사상과 배치되는 사상조류들도 류포되였다.

고구려의 진보적인 사상가운데서 중요한것은 유물론, 변증법적사상요소와 무신론사상이다.

고구려의 진보적사상가들은 세계가 물질적실체인 기로 형성되여있다고보았으며 음기와 양기의 호상작용과 조화에 의하여 사물현상의 운동, 변화가 이루어진다고보았다. 그들은 세계가 물, 불, 나무, 쇠, 흙의 5가지의 성질을 가진 물질들로 이루어져있다고보기도 하였고 또 흙, 물, 불, 바람의 네가지 요소에 의하여 구성되여있다고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음양5행, 4대사상은 소박한 유물론사상에서 출발한것이였다.

고구려사람들은 자주의식이 높고 상무정신이 강하였던것만큼 그들속에는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고구려의 진보적인 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또한 강한 자주정신과 애국적인 상무사상이다.

고구려사람들이 강한 자주정신을 지니고있었다는것은 고구려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당당한 천자(황제)국으로 자부하고 대외관계에서 시종일관 자기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한데서 뚜렷이 표현된다.

고구려시기의 금석문과 력사기록들에는 고구려의 건국자 동명성왕이 《천제의 아들》, 《황천의 아들》, 《해와 달의 아들》로, 21대 왕이였던 고국원왕이 《소렬제(소렬황제)》로 불리운 사실이 기록되여있다. 이밖에도 고구려가 년호의 제정사용과 제후에 대한 책봉, 제천의식의 거행 등 황제국에 고유한 제도와 의례의식을 제정실시한 사실들은 고구려가 천자국으로서 다른 강대한 나라들과도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의 상무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일상적으로 체력을 단련하고 무술을 닦는것을 의무로 여기는 사상이였다. 이러한 상무사상이 강하게 지배한 고구려에서는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모두가 어릴 때부터 일상적으로 무술을 배우는것이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되여있었으며 놀이와 경기를 하여도 모두 무술을 기본으로 하고 사냥과 사냥경기를 즐겨하였다. 고구려의 상무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번영을 바라는 고구려사람들의 애국적사상감정의 분출로서 수십차례에 걸쳐 감행된 외적의 침략을 물리치고 고구려를 강대하고 발전된 나라로 자랑떨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고구려인민들은 인간과 사회생활에서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순결한 사랑과 의리를 숭상하는 사상정신이 강하였다.

한편 고구려에서는 봉건통치배들의 계급적요구에 의하여 각종 종교와 그와 관련한 관념론적 및 종교적인 철학사상조류와 사회정치사상, 륜리도덕적견해들이 류포되였다.

고구려에는 고유종교, 신앙으로서 시조신숭배, 하늘숭배를 비롯하여 토지와 산천의 신에 대한 숭배, 신선사상 등이 있었다.

특히 고구려에서 시조신숭배와 하늘에 대한 숭배는 천자국으로서의 나라의 권위를 시위하고 나라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사상정신적통치수단으로 되였다. 국가적으로 시조 동명성왕을 하느님(천제)의 아들 또는 손자로 떠받들고 그를 《신격화》하였으며 첫 수도 졸본을 비롯하여 중요고을들에 사당을 두고 제사를 지내였다. 그리고 해마다 3월과 10월에 제천행사를 열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것을 전통화하였다. 10월 제천행사를 《동맹, 동명》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고구려에서 시조신숭배와 하늘에 대한 숭배가 밀접히 결합되여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에는 유교, 불교, 도교와 같은 외래종교들도 전파되였다. 이 외래종교들은 고유종교와 함께 고구려봉건통치배들의 중요한 통치사상으로 되여 인민들의 자주의식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봉건통치를 원활히 하는데 복무하였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명일

우리 함께 연두부맛을 봅시다



《여러분은 연두부를 맛보았습니까?》

이 물음에 아마 동포여러분은 여러가지 대답을 할것입니다.

재중동포들은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운채 《맛보다마다요. 연두부야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요. 조선사람치고 콩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라구요.》라고 대답할수 있을것이고 로씨야나 미국, 카나다 등의 나라에서 사는 동포들속에서는 두부라는 말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연두부라는 말이 귀에 설다고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연두부란 말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그대로 연한 두부라는 뜻으로 리해를 하면 됩니다.

연두부첨가제 《정향》을 연구한 최윤의는 연두부는 김치를 만드는 원리와 같다고 합니다.

김치는 배추를 절구었다가 씻어서 양념을 두고 통에 넣어 천천히 발효시켜 만들듯이 연두부역시 콩물을 끓여 식힌 다음 첨가제를 두어 자체로 발효시켜 만듭니다.

연두부는 콩음식들가운데서 약리작용이 큰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럼 건강에 좋은 연두부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연두부를 늘 만들어먹는 세대들중에서도 소문난 평양시 만경대구역 팔골2동 26인민반에서 사는 최봉의가정을 찾았습니다.

우리와 만난 가정주부 홍성옥로인은 10여년전부터 연두부덕을 톡톡히 보고있다고 하면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우선 콩 1㎏을 3시간 불군 후 보드랍게 분쇄합니다. 자루에 넣어 콩물을 짤수도 있고 짜지 않고 그대로 끓여도 되는데 콩물의 총량이 10L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콩물을 가마에 넣어 센 불에서 까풀이 앉을때까지 끓입니다. 바께쯔에 담은 익힌 콩물이 80℃까지 식었을 때 연두부첨가제 8방울(0.4㎎)을 두고 골고루 섞은 후 뚜껑을 덮어 17~20℃정도의 방안온도에서 숙성시킵니다. 연두부는 7~15시간이면 응결됩니다. 이 연두부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변하지 않으며 묵을수록 약효가 더욱 나타납니다. 첨가제가 없는 경우에는 옛 방법 그대로 김치국물을 넣고 만들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홍로인에게 연두부만들기가 두부만들기보다 상당히 쉬운데 영양가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부를 만들 때 생기는 순물에는 여러가지 영양성분들이 풀려나가지만 연두부는 순물이라는것조차 없이 생리활성물질들과 광물질들을 모조리 응결시킵니다. 연두부는 위염, 간염, 만성소대장염, 결핵은 물론 순환기계통질병,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 등에 매우 좋아 약용식품으로 등록되여있습니다.

연두부를 저어 희석한 후 사탕가루를 치면 순간에 요구르트가 되고 빵이나 꽈배기만드는 반죽물에 물대신 연두부를 넣고 쉬우면 빵살이 보근보근해지며 조개나 버섯, 감자로 국을 끓일 때 국물에 연두부를 넣으면 닭알을 풀어넣은것처럼 맛이 한껏 살아나는 등 연두부로는 수십가지 료리를 할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연두부에 대한 표상이 어느 정도 생길것입니다.

동포여러분, 연두부에는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휴식일도 마다하시고 일군들과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특별강의를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이야기가 깃들어있습니다.

가정에서 연두부를 만들어 맛보십시오. 자주 먹으면 건강이 상당히 좋아지는것을 느낄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조국에 오는 기회가 생기면 우리에게 그에 대해 꼭 이야기해주십시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조국의 천연기념물 (4)



연지봉소나무

이번호에는 량강도의 천연기념물인 연지봉소나무, 갑산비슬나무, 백두산들쭉, 백두산만병초, 북포태산왕대황, 남포태산왕대황, 후창조릿대군락, 천지산천어, 합수도롱룡살이터, 삼지연붕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연지봉소나무는 해발 2 110m되는 백두산의 대연지봉과 소연지봉사이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연지봉소나무는 마치 여러대의 나무가 모여나온것처럼 뿌리목에서 8개의 가지가 나와 자라고있으며 나무의 높이는 2m, 나무갓너비는 3m로서 소반모양을 이루고있습니다.

갑산비슬나무는 갑산군소재지에서 북쪽으로 4km가량 떨어진 송암리에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의 높이는 25m, 뿌리목둘레는 7.4m, 가슴높이둘레는 5.5m이며 나무갓너비는 23.5m입니다.

나무는 2.8m높이에서 여러 갈래로 가지들이 뻗어 나무갓은 넓은 우산모양을 이루고있습니다.

백두산들쭉은 진달래과에 속하는 들쭉나무열매로서 신무성지구에서 백두산으로 올라가는 도로주변에 자연적으로 퍼져있습니다. 백두산들쭉은 자연무리특성과 조성을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학술적의의를 가질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의의가 있는 천연기념물입니다.

백두산만병초는 신무성으로부터 무두봉까지에 이르는 백두산의 넓은 지역과 그 주변에서 무리로 자라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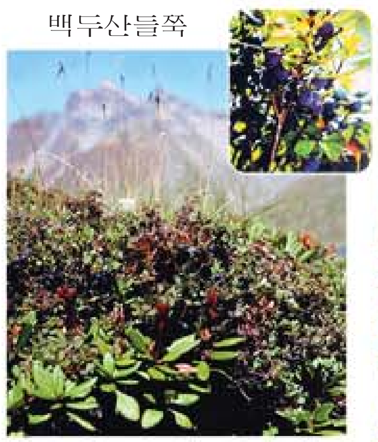
백두산만병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자연풍치를 돋구어주는데 큰 의의를 가지며 만병초무리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학술적의의가 있습니다.

북포태산왕대황은 북포태산 산림한계선(해발 2 000m)우의 산마루일대에 퍼져 자라고있습니다. 왕대황이 비교적 많이 퍼져있는 면적은 약 2km²이지만 무리를 형성하지 못하고 몇포기씩 모여서 자라기도 합니다. 꽃은 7월경에 피고 9월 중순이면 열매가 완전히 여물어 떨어집니다.

남포태산왕대황은 남포태산 산림한계선의 서쪽비탈면에 퍼져있습니다.

이 지역은 바위들이 드러나있는 현무암지대로서 지형이 험하고 공기습도가 높아 왕대황의 생육에 매우 유리합니다.

백두산들쭉



백두산만병초



후창조릿대군락





천지산천어



합수도롱룡살이터



후창조릿대군락은 오가산동쪽비탈면에 분포되여있는데 면적은 1.3정보입니다.

조릿대는 뿌리줄기가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새싹들이 나오므로 한포기에서 여러대가 자랍니다.

조릿대의 평균높이는 45~60㎝이며 마디수는 4~9개, 잎길이는 18~25㎝, 너비는 2.5~3.5㎝입니다.

천지산천어의 몸길이는 보통 40~50㎝, 최고 85㎝이며 몸질량은 보통 0.5kg, 최고 7.7kg입니다.

우리 나라의 어류학자들은 주체49(1960)년 7월 백두산천지에 처음으로 두만강의 산천어와 삼지연의 붕어를 넣어주어 천지의 엄혹한 기상기후조건과 고유한 생태적환경에 적응순화시켰습니다.

천지산천어는 크기가 일반산천어보다 크며 소화기관인 아가미빗살수는 2~3개 적고 너스레밸수는 3~4개 많습니다.

알쓸이는 9~10월에 한마리가 보통 600~700알, 많은것은 1 000알이상 씁니다. 천지산천어는 산천어가운데서 유라시아대륙의 남쪽 제일 높은 곳에 분포된것으로 하여 학술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합수도롱룡살이터가 있는 곳은 대택역에서 북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에 있는 늪입니다.

늪의 둘레는 3 000m이고 제일 깊은 곳은 7m입니다. 늪은 해발 1 740m가 되는 지대로서 주변은 1m이상 두터운 진펄토양으로 습지대를 이루고 물이끼로 덮이여있으며 토양은 니탄층으로 되여있습니다.

합수도롱룡살이터는 세계적으로 지리적분포의 남한계선으로서 학술적의의가 있는 보호대상지입니다.

삼지연붕어는 우리 나라 특산아종물고기입니다.

붕어는 잉어과에 속하는 더운성물고기로서 일반적으로 벌방지대와 중간지대의 해발 600m아래의 수역에서 서식하는 생활력이 강한 민물고기입니다. 그런데 해발 1 400m나 되는 아한대수역인 삼지연에서 붕어가 살고있다는것이 학계의 주목을 끌고있습니다.

오랜 세월 고립된 생태환경에서 살던 생활력이 강한 붕어들은 이곳 환경에 적응되여 아종으로 분화되였습니다.

일반붕어는 알쓸이시기가 4월 하순-6월이지만 삼지연붕어는 6월 하순-8월기간에 알을 씁니다. 이것은 이 지구의 기상기후 및 수문조건과 관련됩니다.

삼지연붕어는 유서깊은 삼지연의 명산물이며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천연기념물입니다.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연구사 김지향



개성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6)

- 숭양서원 -

개성시 선죽동에 가면 숭양서원을 볼수 있습니다. 서원이란 량반자식들에게 유교사상과 도덕을 교육하기 위하여 세운 학교를 말합니다.

숭양서원은 고려말에 고려의 대관료였고 유능한 군사가, 외교가였던 포은 정몽주(1337년-1392년)가 살던 집자리에 처음 세웠던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573년에 고쳐지은 서원입니다.

여기서는 정몽주의 제사를 지내다가 그후 고려때의 시중이였던 우현보(1333년-1400년)를 함께 제사지냈고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이름있는 학자들인 서경덕(1489년-1546년), 김육(1580년-1658년) 등 개성출신인물들도 아울러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숭양서원은 본래의 사명인 교육과 함께 대표적인 유교성리학자들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유교를 선전보급하는 장소로도 리용되였던것 같습니다.

1575년에 조선봉건왕조국왕은 그때까지 정몽주의 시호를 붙여 《문충당》이라고 불러오던 이 서원을 숭양서원이라 사액(서원의 이름을 쓴 액자를 내려보내는것)하였으며 1864년의 대대적인 서원철페때에도 이 서원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숭양서원은 자남산을 등지고 그 동남쪽 경사지에 대칭적으로 규모있게 배치되여있습니다. 장방형으로 둘러막힌 담장의 앞에 난 바깥3문으로 들어서면 마당 좌우에 학생들의 합숙이였던 동재와 서재가 마주서있고 그뒤에 강당이 있으며 다시 그뒤로 안3문을 지나면 사당(문충당)이 있습니다. 강당은 높은 기단우에 흘림기둥을 세우고 두공이 없이 지은 정면 5간(12. 79m), 측면 3간(6. 96m)의 홑처마합각집입니다. 건물안의 가운데에는 마루를 깔았으며 그 량쪽에 옆간이 있는데 앞쪽 한간은 마루방과 이어진 퇴로 하고 그뒤에 온돌방을 꾸렸습니다.

사당은 그보다 더 높은 단우에 세운 정면 4간(9. 43m), 측면 2간(4. 83m)의 겹처마배집입니다. 동재, 서재는 다 정면 5간, 측면 2간이며 사당앞의 좌우에는 비석 2개가 있습니다.

숭양서원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심히 파괴되였으나 전후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문화유물보존정책에 의하여 옛 모습을 다시 찾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76(1987)년 8월 개성시안에 있는 옛 건물들의 실태를 료해하시고 숭양서원을 잘 보수, 정비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서원의 전형적인 배치형식과 건축구조를 그대로 보존하고있는 귀중한 유적인 숭양서원은 2013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신애

짓부셔버려야 할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때로부터 장장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지만 겨레는 아직도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지 못하고있다. 그 원인의 하나가 바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때문이다.

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가시고 평화번영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면 온 겨레가 뜻과 힘을 하나로 합쳐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내외반통일세력은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며 민족공동의 투쟁대상이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란도질하는 이런 반통일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가도 통일의 새 아침을 맞이할수 없으며 온 겨레의 화목과 단합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이 민족분렬의 오랜 력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이 들씌워진 민족분렬의 장구한 기간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동족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한 내외반통일세력의 범죄적인 책동은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 기여든 첫 순간부터 조선을 정치군사적으로 영원히 틀어쥐고 그것을 발판으로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남대결을 고취하여왔으며 조선의 통일을 음으로양으로 반대하였다.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선전쟁에서 패한 후에도 미국은 저들의 전조선지배야욕을 버리지 않고 동족간에 오해와 불신을 조장시키는 한편 남조선의 력대 군부호전세력들을 북침전쟁도발에로 적극 부추기면서 조국통일위업실현을 각방으로 방해해나섰다. 미국의 이러한 반통일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불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서는 많은 시련과 난관이 조성되였다.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력사적인 7. 4공동성명과 6. 15북남공동선언, 10. 4선언의 발표로 북남관계에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감돌고 조국통일운동이 활성화될 때마다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며 북남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고집하면서 민족의 통일지향에 서슴없이 찬물을 끼얹었다.

특히 남조선의 사대매국세력은 겨레의 절절한 통일념원을 외면한채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는 놀음까지 벌리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의 이러한 반통일적이며 매국배족적인 망동으로 하여 오늘 북남관계에서는 최악의 파국상태가 초래되게 되였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만 덧쌓이고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책동으로 북남대결의 장벽이 높이 쌓아지고있는것은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용납 못할 도전이 아닐수 없다.

온 겨레는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벌려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온 민족이 한데 뭉쳐 떨쳐나선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 외세와 분렬주의세력이 제아무리 반통일책동에 매달려도 겨레의 단결된 힘을 당해낼수는 없는것이다.

미국은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기는 민족리간술책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오늘 전략적지위가 달라진 우리 나라를 상대하고있는 미국에 있어서 현명한 처사로 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올해에 기어이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철

근로자들은 살아갈수 없는 생지옥

박근혜가 지난 괴뢰대통령선거때 후보로 나서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민생대통령》이 될것이라고 목청을 돋구어 광고하였다는것은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 남조선에서는 로동자들이 로동조건이란 말도 통하지 않는 지옥에서 항시적인 불안에 시달리고있다.

삼성반도체공장의 유독성가스루출사고와 현대중공업 울산공장화재폭발사고, 현대제철산하의 한 제철소에서 5명의 로동자가 전기로에서 보수공사를 하다가 가스질식사고로 숨지고 그후에는 독성가스가 루출되여 9명이 피해를 입은 사고, 부산의 어느 한 조선소에서 40t짜리 기중기의 기계실이 15m 높이에서 떨어져 그밑에서 일하던 여러명의 로동자들이 죽고 경기도 룡인시의 한 도로공사장에서는 건설중이던 다리상판이 무너져내려 숱한 사람들이 숨지거나 부상당하는 참변, 더우기 전라남도 신안군의 어느 한 섬에 있는 소금밭경영자가 10여명의 장애자들을 외딴 시설에 감금해놓고 마소처럼 부려먹으면서도 일을 잘 못한다고 하여 쇠사슬로 묶어 개우리에 처넣은 일명 염전노예사건… 이상과 같은 단적인 몇가지 사실들을 놓고서도 왜 남조선의 언론들마저 저들의 공장, 기업소들을 《로동자들의 무덤》, 《최악의 살인기업 1위》라고 하며 《〈렬악한 로동환경〉이라는 표현구마저 사치스러운 죽음의 일터》라고 개탄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괴뢰패당이 축소하여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2014년에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로동자의 수는 하루평균 240여명, 년 9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로동조건개선을 요구하여 투쟁을 벌리는 남조선로동자들



산업재해의 위협이 가중되는 속에 오늘 남조선에서는 실업자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다.

2013년에 350여만명이였던 실업자가 2014년에는 450여만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취업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무려 50여만명이나 된다.

하루 또는 몇개월정도 고용되여 일하며 얼마 안되는 임금을 받는 반실업자도 800만명에서 1 00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더는 살래야 살수 없는 사회여서 괴뢰역적패당과 썩어빠진 사회를 저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꼬리를 물고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자 죄많은 아버지를 용서해달라며 탄불을 피워놓고 목숨을 끊은 로동자, 살기가 어려워 자식들과 함께 집단자살의 길을 택한 송파세모녀자살사건, 생활난에 더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글을 써놓고 서울역주변 대도로에서 분신자살한 40대의 남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영업을 운영해오던 40대의 부모가 모진 생활상고통을 겪던 끝에 12살, 15살나이의 어린 딸들과 함께 죽음의 길을 택한것 등 자살의 길을 택한 사람들의 정상은 눈을 뜨고는 차마 볼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현재 남조선은 년간 자살자수가 1만 5 000여명에 달하는 세계 1위의 《자살왕국》으로 되고있으며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만 해도 70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하기에 괴뢰패당은 《자살예방 5개년계획》이라는 해괴한 계획까지 다 만들어내는 형편이다.

보는바와 같이 남조선은 인간이 초보적으로 살아갈수 있는 권리마저 무참히 유린당하는 인간생지옥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분연히 떨쳐일어나 경제와 민생을 파국에로 몰아넣고 온갖 불행과 고통, 죽음만을 강요하며 죄악에 죄악을 덧쌓은 박근혜역적패당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린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본사기자 한신애

미국땅은 하나의 전쟁마당이다

지난 1월 6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어느 한 비행장에서는 사람들을 향해 마구 총사격을 가하는 26살 난 한 청년에 의해 5명이 살해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로 하여 려행자들이 긴급대피하였고 비행장은 순간에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미국에서는 정초부터 지금까지 총기류범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올해는 제껴놓고라도 미국에서 2016년 한해동안에 일어난 5만 7 000여건의 총기류범죄에 의하여 1만 4 00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3만명이 부상당하였다.

그러니 앞서 해마다 총기류범죄에 의해 죽은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는가.

2003년 이라크전쟁과 2001년 아프가니스탄전쟁이 개시된 때로부터 2009년까지 이 두 나라에서 죽은 미군수는 각각 4 360여명, 845명에 달한다고 한다.

굳이 수자적으로 대비한다면 미국땅에서 총기류범죄에 의해 한해동안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가 여러해에 걸치는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의 미군사상자수보다 몇배나 많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결국 미국땅은 제 사람들끼리 서로 죽일내기를 하고있는 하나의 치렬한 전쟁마당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언제인가 어느 한 나라의 방송은 미국력사에 기록된 남북전쟁과 미국-에스빠냐전쟁,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등 수많은 전쟁들에서 죽은 미국인수는 모두 합하여 120만명이며 평화시기 미국에서 총기류범죄에 의한 사망자수는 140만명이라고 밝힌적이 있다.

총으로 다른 나라의 신성한 령토를 빼앗고 자주권을 짓밟으며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다 못해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죽일내기를 하고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것이다. 지어 사회질서와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해주어야 할 경찰들까지 매해 근 1 000여명의 무고한 사람들에게 총질을 하여 살해하고있다.

하다면 미국에서는 어찌하여 총기류범죄가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고있는것인가.

그것은 부패한 사회제도가 낳은 필연적산물로서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약육강식의 생존론리,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것이 《자유》로 정당화되는 미국식《민주주의》, 인간증오와 패륜패덕이 찬미되는 말세기적인 사회풍조가 미국을 총기류범죄의 서식장으로 만들었던것이다.

미국에서는 개인들의 총기류소유가 법적, 제도적으로 묵인되고있으며 총이 처녀, 총각들의 《결혼지참품》으로까지 되고있다. 개별적주민들이 가지고있는 총기류만도 3억 5 700만정에 달한다고 한다.

총기류범죄의 희생물이 된 무고한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총탄세례를 받고있다.

무력대고 총질을 해대는 사회, 그야말로 미국은 폭력의 세계라고 해야 할것이다.

집권층이 총기규제를 강화한다 어쩐다 하며 부산을 피우고있지만 그것은 미국사회의 반동적본질과 부패상을 가리우기 위한 가면극에 불과하다.

미국의 수많은 무기업체들은 무기생산과 판매에 열을 올리고 거기서 거두어들인 막대한 돈으로 정객들을 후원하면서 총기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인간증오, 생존본능을 설교하는 폭력적인 내용의 영화, 오락, 출판물 등의 대대적인 류포, 빈부격차와 인종차별 등은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을 해치고 그들을 범죄에로 몰아가고있다.

파연 여기에 그 무슨 참다운 인권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단말인가.

그 주제에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거들

경찰이 흑인을 총으로 쏘아죽인데 대하여 항의하는 미국인들



부질없는 망동

일본이 제 처지도 모르고 파렴치하게 놀고있다.

최근 일본에서 일본의 유엔가입 60년을 기념하는 그 무슨 토론회라는데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개혁은 급선무라느니, 일본이 상임리사국으로 되면 자기 책임을 다할것이라느니 하는 따위의 주제넘은 소리들이 튀여나와 세인의 조소를 받았다.

제 주제도 모르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의 벙거지를 쓰고 미국의 손발이 되여 세계정치에 끼여보려는 일본의 추태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일본으로 말하면 국제문제들을 다루는 유엔의 책임적인 자리에 들어앉을 초보적인 자격조차 못가진 나라이다.

20세기 전반기에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특대형반인륜적범죄들을 저지른 죄많은 과거사를 안고있는것이 바로 일본이다.

몇가지 실례를 든다면 당시 일제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강점하고 수천만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으며 수많은 재부를 략탈하였다. 더우기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전쟁터와 고역장으로 강제련행하고 100만여명을 학살하였을뿐만아니라 막대한 재부를 강탈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비롯하여 아시아와 세계의 수많은 나라 녀성들을 강제로 끌어다 비참한 성노예생활을 강요하였다. 과거 일제가 저지른 죄악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때로부터 70년이 넘은 오늘까지도 일본은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게 끼친 과거죄행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고있다.

뿐만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과거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한것이 아니라 유미렬강들의 침략과 지배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해방전쟁》을 벌렸다고 우겨대는가 하면 저들이 저지른 치떨리는 죄악을 오히려 《번영과 발전》을 도와준것으로 뒤집어 말하고있다.

유엔헌장이 규제한 《적국》에 대한 조항에는 일본이 해당된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자격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저렬한 일본이 국제기구의 책임적인 자리를 차지해보겠다는것은 세계인민들에 대한 우롱이고 인류량심에 대한 도전이다.

일본에서 저들이 상임리사국이 되면 자기 책임을 다할것이라는 말이 나오고있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전쟁터로 변모될것이다.

이미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야망실현을 위한 법적발판을 마련해놓은 일본은 지금 미국을 등에 업고 《자위대》의 무력증강을 미친듯이 다그치고있다. 《자위대》를 공격형의 침략무력으로 완전히 개편하고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그 타격력과 작전능력을 높이는데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이미 일본은 오끼나와현의 나하기지에 있는 《F-15》전투기비행대를 2개로 늘이기로 결정하였고 제9항공단을 새로 조직하였으며 혹가이도에 있는 항공《자위대》기지에 《패트리오트》미싸일을 끌어들이였다. 그런가 하면 혹가이도로부터 오끼나와에 이르는 전국의 15개 기지들에 수십기의 미싸일들을 증강배비하고도 성차지 않아 미국으로부터 42대의 《F-35》스텔스전투기를 구입하려 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일본은 《평화국가》의 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진 극히 위험한 침략세력, 전쟁세력으로 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런 일본이 유엔의 책임적인 자리를 넘겨다보는것은 그를 악용하여 해외팽창, 재침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일본이 푼수없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넘겨다보지 말고 제코나 바로 씻으라고 조소, 비난하고있는것이다.

미꾸라지가 룡이 될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미국에 붙어 기생하는 일본이 아무리 거인행세를 해도 정치난쟁이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일본은 부질없는 망동은 그만 부리고 법적, 도덕적의무인 과거청산부터 똑똑히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며 놀아대고있는 미국의 꼴이 참으로 가소롭다.

피비린 살륙마당으로 악취풍기는 미국이 《문명》에 대해, 그 무슨 《인권》에 대해 론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세계인민들에게 당부하고싶다.

하나의 전쟁마당과 같은 미국땅에 갈 때에는 반드시 철갑모와 방탄복을 착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가는 미국에서 생명을 보존하기가 헐치 않을것이라는것을.

석철호

황홀한 물의 세계에로



사계절 그 어느때나 조국을 방문하는 동포여러분이 찾아볼수 있는 관광명소로는 문수물놀이장을 꼽을수 있습니다.

총 건평이 10만㎡가 넘는 부지에 실내물놀이장, 야외물놀이장, 실내체육관 등이 있는 물놀이장은 다기능화되여있습니다.

이곳은 방대한 규모와 다양한 내용, 조화롭고 독특한 형식 등 물놀이장내외부의 조형예술적인 완벽함과 훌륭함이 최상의 경지에 이르러 그 어느 나라의 물놀이장과 대비조차 할수 없는 곳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바다물이 출렁이는 바다물수조를 비롯한 10여개의 서로 다른 수조들, 용감성을 시험하는듯 한 각이한 모양과 기능의 물미끄럼대들, 인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한증방들과 급양 및 편의봉사시설들, 벼랑타기와 탄력망과 같은 체육관의 체육기재들…

정말 한번 맛들이면 떠나기 싫어지는 곳입니다.

문수물놀이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가보는것이 더 나을것입니다.

문수물놀이장은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수지구에 있습니다.





룩승정의 봄　　본사기자 최원철

련못가운데 돌축대를 쌓고 세운 륙승정(평안북도 녕변군 녕변읍)에 봄이 왔다. 나무들에 움터난 파아란 잎새와 활짝 피여난 개나리꽃과 함께 물에 비낀 륙승정의 아름다운 모습에는 이곳 인민들의 행복스러운 모습마저 함께 어린듯싶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782139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